

文學碩士 學位論文

불국사 경내 출토 진단구 연구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金 次 貞

2007年 12月

불국사 경내 출토 진단구 연구

指導教授 姜 奉 遠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12月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金 次 貞

金次貞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慶州大學校 大學院

2007年 12月

목 차

I. 머리말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동기와 방법	3
II. 연구대상	6
III. 불국사 경내 출토 진단구의 유형	10
1. I 유형	11
2. II 유형	14
3. III 유형	17
4. IV 유형	18
5. V 유형	20
IV. 불국사 경내 출토 진단구의 편년	24
V. 맺음말	33
참고문헌	36
Abstract	57

〈도면 목차〉

도면 1. 불국사 경내 정보박물관예정부지 발굴조사구역 지형도	39
도면 2. 발굴조사구역 유구배치도 및 구획도	40
도면 3. 진단구의 다섯 가지 유형	41
도면 4. 진단구 II유형과 공반된 뚜껑	44
도면 5. I 유형의 출토 예	48
도면 6. II유형과 뚜껑 C형의 출토 예	48
도면 7. 황룡사 석등지 출토 진단구	49
도면 8. 뚜껑을 덮고 출토된 II유형의 예	49
도면 9. III유형의 출토 예	50
도면 10. 영암구림리요지출토 壺 口緣部	50
도면 11. 4면이 편평한 호의 출토 예	51
도면 12. IV유형과 C형 뚜껑의 출토 예	51
도면 13. 완(盪)을 뚜껑대신 덮고 출토된 진단구	52
도면 14. 영암구림리요지출토 완	52
도면 15. V유형의 출토 예	53

〈도판 목차〉

도판 1. 불국사 경내 출토 진단구 I 유형	42
도판 2. 불국사경내 출토 진단구 II유형	44
도판 3. 불국사경내 출토 진단구 III유형	45
도판 4. 불국사경내 출토 진단구 IV유형	46
도판 5. 불국사경내 출토 진단구 V유형	47
도판 6. 傳인용사지 출토 진단구	48

〈표 목차〉

표 1.	54
표 2.	54
표 3.	55
표 4.	55

〈도표 목차〉

도표 1.	54
도표 2.	54
도표 3.	55
도표 4.	55

I.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서양도 그러하지만 동양사회에서는 고래(古來)로 태양신, 산신, 지신 등을 믿어 오고 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물들, 예를 들면 큰 바위나 나무 등에도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것은 통상 정령신앙(精靈信仰, animism)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집이나 궁궐 등 건축물을 축조할 때 지신(地神)을 진정시키거나 순화(純化)한다는 생각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하기 전에 제사를 지낸다. 이때 땅을 파고 그 속에 여러 가지 물건들 예를 들면 철기, 토기, 자기 등을 묻어왔다.

본 논문은 지상부(地上部)의 건축물과 관련하여 그 하부(下部)에 의도적으로 땅을 파고 묻어 놓은 토기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토기는 왕경유적이나 관아(官衙) 및 사찰(寺刹)유적 같은 건축물이 들어선 곳에서 출토되는 유물 중의 하나로 상부(上部) 유적의 성격파악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건축물과 관련된 유적의 발굴 중 후대의 건물지 발굴은 상층부의 교란이 심할 뿐 아니라 초창기 건물지에 비해 규칙성이나 정연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어 발굴상의 어려움이 있다. 건축물을 축조할 때 초창기 건축물의 기단이나 초석을 재활용하거나 할석을 사용하여 바로 상층에 겹쳐서 조영하는 등의 문제는 후대 건축물의 축조시기를 가늠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다행히 후대의 유적에서 출토되는 장판기와나¹⁾ 초기 청자로 비정되는 해무리굽완에 대한 연구가²⁾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
- 1) 崔兌先, 1993, 『平瓦製作法の 變遷에 대한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2004, 「고려시대 기와연구의 성과와 과제-평기와 연구를 중심으로-」, 『제1회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발표문집』, 한국기와학회.
徐五善, 1985, 『韓國平瓦文様の 時代的 變遷에 對한 研究』, 忠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2) 尹龍二, 1992, 「高麗青瓷의 起源과 發展」 『韓國美術史의 現況』, 藝耕.
李鍾玟, 2002, 『韓國의 初期青磁 研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博士學位論文.
이희관, 2002, 「韓國 初期青磁에 있어서 해무리굽碗 問題의 再檢討」 『제45회 전국역사학대회』.
李旼馨, 2007,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에 대하여』, 慶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있어 이들 유적에 대한 새로운 편년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상기 유물에 의한 편년적용은 이전에 주관이 많이 들어간 양식적 분류에 의한 토기나 기와의 편년에 비해서는 제작기법을 우선시 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기와는 지상부(地上部)에 설치되어 빈번한 수리 증축이 따르고, 자기도 생활에서 사용하는 유동적인 유물이므로 층위발굴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처럼 건물지에 관련된 유물은 대부분 유구의 상층부에서 확인되고 있다.

반면 본고에서 고찰하려는 토기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안전과 연속성을 위해, 혹은 공사자의 안전 또는 완공 후 건물 내에 생활할 사람들의 부귀(富貴)와 복락(福樂)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염원을 가지고 땅 속에 매납(埋納)된다. 그래서 상부의 건축물과 관련된 하층의 가장 안정된 곳에 땅을 파고 묻어놓아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으며 지상부의 다른 유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동이나 파괴가 덜한 상태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이들 토기는 유적에 대한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상부 건축물의 상한 연대를 예정하는 가장 좋은 표지적 유물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후대의 유적 중 그 시기가 고려전기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관련된 하부(下部)에서 출토되는 토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것은 경주지역에서 출토되는 이와 동일한 기형의 토기가 신라의 수도(首都)였던 이 지역에서 고려로 왕조가 바뀌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물질과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살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초로 신라 천년의 이미지가 강하여 상대적으로 고려·조선시대의 문화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경주지역과 나아가 타(他) 지역에 있어 고려전기의 문화를 밝힐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 연구의 동기와 방법

본 연구는 경주대학교 박물관이 2004년 2월 18일부터 2004년 12월 4일까지 실시한 대한불교조계종 제 11교구 본사 불국사가 시행하는 성보 박물관 건립예정부지의 구제발굴조사에서 매납되어 출토(이하 불국사 경내 출토)된 토기를 중심으로 하였다. 유적의 정확한 행정구역은 경북 경주시 진현동 123-1번지 일원으로 불국사의 남쪽에서 진입하는 일주문에서 사천왕문으로 개설된 진입로의 동쪽에 위치하며 불국사 전체 경내의 남동쪽에 위치한다(도면 1).

조사구역에서는 고려시대의 건물지 및 옛길, 청동경과 사자형상의 청동인장, 북송말기의 동전인 송녕통보, 각종 중국자기 등이 출토되었다. 지표층 가까운 곳에서 소량의 통일신라 유물이 확인되고 있지만 전체 유물의 출토상황을 볼 때 중심시기가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이다(도면 2). 이 가운데 9동의 건물지와 관련된 내부 혹은 외부의 아래에 매납된 유물이 발견되었다. 매납된 토기, 자기, 기와는 전후관계를 고려할 때 이들은 건물지의 축조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지의 축조와 관련해서 하부에 매납되어 출토된 토기는 그에 대한 인식부족과 재질의 한계 상 파편으로 출토되는 예가 많아서 자료의 정리나 소개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 불국사 경내에서는 건축물과 관련된 최하층인 자연층 속에 안정된 상태로 매납된 토기 44점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토기는 완형에 가깝거나 원형으로의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형을 잘 인식할 수 있으며, 또 토기 속에 내용물을 담고 있는 것이 많아서 매납 당시의 행위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내용물 중 하나인 목탄은 C-14연대를 측정한 결과 토기를 묻은 시기가 고려시대라는 추정이 가능하다.³⁾

이러한 출토상황은 불국사 경내에서 매납되어 출토된 토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정말로 고려시대의 것이라면, 경주지역에 있어 앞 시기인 통일신라로부터 고려시대로 왕조가 바뀌면서 변화하는 사회, 문화적인 연속성을 살필 수 있는 유물 중의 하나

3) 慶州大學校博物館, 2006, 『慶州 佛國寺 境內 聖寶博物館建立豫定敷地 發掘調査報告書』, p. 567, 목탄 시료의 C-14연대 측정 결과 A.D. 890~1040, A.D.900~1190, A.D. 970~1160, A.D. 970~1160의 결과가 나왔다.

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와 후백제는 무력으로 대결해나간 것과 다르게 신라와 고려는 우호적 관계였으며 마지막 왕인 경순왕 김부(金傳)가 고려에 귀부(歸附)함으로써 평화적인 합병을 하였다.⁴⁾ 그리고 이 과정에서 두 왕실이 혈연관계로 맺어지게 되고⁵⁾ 경주출신의 귀족들은 고려 조정에 참여하여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였다.⁶⁾ 이러한 이유로 고려가 신라를 계승하였다는 시각이 널리 퍼져있었고 경주지역은 고려시대에도 수도인 개경(開經)과 함께 양경(兩京)의 하나인 동경(東京)으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⁷⁾ 그러나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실들은 이제껏 구체적인 유물이나 유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불국사 경내에서 매납되어 출토된 토기는 실제로 고고자료를 통해서 문헌사료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본 유적의 발굴조사 보고서작업에 참여하면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경주지역에서는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한 기형의 토기를 대부분 통일신라시대의 것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불국사 경내에서 매납되어 출토된 토기의 정확한 매납시기를 밝힐 필요성을 느꼈다. 경주지역에 있어 고려시대로 접어들면서 일어난 당시의 사회·문화상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납된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물에 대한 고찰은 먼저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살펴서 본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연구대상의 성격과 범주를 한정하였다. 그리고 출토된 토기에 나타나는 기형과 출토상황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4) 『三國史記』卷一二, 新羅本紀 敬順王 9年.

5) 『高麗史』卷2, 世家 太祖 18年 冬10月・11月・12月條.

『高麗史』卷88, 后妃傳 太祖 神成王太后金氏

6) 『高麗史』卷2, 世家 太祖 14年 春2月・夏5月條.

『高麗史』卷95, 列傳 金漢忠傳.

『高麗史』卷8, 世家 文宗 22年 春正月・同24年8月 및 『高麗史』卷102, 列傳 金仁鏡傳, 以上 敬順王系.

『高麗史』卷5, 世家 顯宗 15年 9月.

『高麗史』卷8, 世家 文宗 16年 7月・『高麗史』卷97, 列傳 金景庸傳, 外 多數, 以上 元聖王系.

7) 『三國史記』卷12

『高麗史』卷57, 地理志 2 慶尙道 東京留守官慶州・『高麗史節要』卷2, 成宗 6年 11月.

I ~ V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유적 내에서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다른 유적에서 출토되는 동일한 기형이나 성격을 가진 토기를 참고하여 이들의 전체적인 편년을 밝혀 보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차적으로는 매납되어 출토된 토기의 매납시기를 규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그 당시 경주지역의 사회상을 추론해보았다.

II. 연구대상

최근 경주지역의 도시유적 발굴 및 타 지역의 사지(寺址) 발굴보고서 등에는 건물지의 하부에서 매납되어 출토되는 토기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매납’이란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이들 토기에 대한 정확한 성격파악에 어려움이 따른다. 매납이란 용어에 대해서 이상길은 분묘에 부장 또는 매장되거나 주거지 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특정유물을 별도의 장소에 따로 묻어 두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⁸⁾ 이러한 이유로 매납 유물은 석축이나 석부 같은 석기, 동검이나 동과 같은 청동기에서 철정, 철모 등의 철기 및 철제품, 토제품, 토기, 기와, 자기, 동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가 포함될 수 있다.

이 가운데 토기가 매납되어 발견되는 예를 보면 무덤이나 사찰, 건물지 등이 있다. 무덤의 경우 시상대의 하부에 토기를 묻어두거나 시상대와 수평적 위치인 묘실 내부에 토기를 놓아두는 경우 또는 시상대 상부의 봉토 속이나 분묘의 호석 주위에 땅을 파서 묻는 경우가 있다. 사찰의 경우는 탑이나 석등 주변에 일정거리를 두고 땅속에 매납하거나 탑기단부에 사리용기가 아닌 또 다른 토기를 매납한 경우, 사찰 안에 있는 건물지 아래에 매납한 경우 등이 있다. 건물지 경우는 건물지 하부의 기단토 속이나 적심석 또는 초석의 가운데나 인접한 곳에 의도적으로 토기를 묻어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장소는 달라도 매납된 것이 분명한 경우이다.

매납되어 출토되는 토기는 이처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 중 건물지 아래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주로 지진구(地鎭具)나 진단구(鎭壇具)로 보고되고 있는데, 둘 다 건축물의 축조와 관련해서 행하는 의식에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실재 발굴조사 현장에서는 둘 사이의 정확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성격의 유물들에 대해 혼용하여 진단구 아니면 지진구로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듯하다.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 강우방은 일본의 연구사례를 참고하여 건축

8) 李相吉, 2000, 『靑銅器時代 儀禮에 관한 考古學的 研究』 大邱曉星카톨릭大學校 博士學位論文, p. 1.

물의 기단을 구축하기 전 지신(地神)에게 드리는 제사를 지진(地鎭), 기단을 구축한 후 건축물을 세우고 나서 공양하여 발원하는 의식을 진단(鎭壇)이라고 정의하였다.⁹⁾

일찍부터 일본에서는 고대 건물지를 축조할 때 땅을 진정시키기 위한 의식을 행하였으며 이것을 진단이나 지진의 개념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 전체에 대해 지신에게 기원하는 행위를 지진이라 하고 건물이나 기단의 축성에 관한 행위를 할 때의 제의행위를 진단이라 구분하기도 한다.¹⁰⁾

가장 최근의 연구로 최은아는 경주지역에서 출토되는 진단구의 종류와 매납위치, 매납방법을 4단계로 설정하여 시기별 변화양상 및 특징에 대해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진단구의 종류는 주로 호, 합, 소옹 등의 소형기종이며 매납방법은 단독매납에서 군집매납으로 변화한다고 보았다.¹¹⁾

김성태는 고대 건물지의 진단구에 대해서 종류와 특징을 살피고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지진·진단구에서 나타나는 변천양상과 그 배경에 대해 정리하였다.¹²⁾

본고에서는 연구대상으로 건축물의 하부에서 진단이나 지진의 성격을 가지고 출토되는 유물 중 토기만을 한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토기에 대해서는 진단의 개념 안에 지진이 포함된다고 보아 ‘진단구’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¹³⁾ 대상유물은 이제까지 보고된 진단구 중 가장 수량이 많고 출토상황이 좋은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된 매납토기를 중심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들에서 나타나는 특징 및 동질성을¹⁴⁾ 파악하여 진단구의

9) 강우방, 1991, 국립중앙박물관, 「불사리장엄론」, 『불사리장엄 특별전』 pp. 151~160.

10) 木内武男, 1961, 「舍利埋納과 鎭壇」 『世界考古學大系』 四, pp. 81-89.

森郁夫, 1976, 「奈良時代の 眞檀具埋納」 『研究論集 III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學報』 第29冊, pp. 67-70.

奈良文化財研究所, 2003, 『古代の 官衙遺蹟Ⅰ 遺構編』, pp. 163-164.

11) 崔恩娥, 2004, 『慶州地域 出土 眞檀具에 대한 研究』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김성태, 2005, 「고대건물지의 진단구에 대하여」 『嶺南文化財研究』 18 : pp. 27-62.

13) 본고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진단구란 용어는 지진과 진단의 의미가 모두 내포된 것이다. 하지만 차후의 연구가 증가 된다면 지진구와 진단구의 성격을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4) J. Scott Wood, Checklist of Pottery Types for The Tonto National Forest an introduction to the archaeological ceramics of central Arizona, Arizona Archaeological Society, 1987, p. 5. “the Checklist must be regarded more as a set of identification

범주를 정리하여 보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 고찰한 진단구는 그 매납 시기와 매납방식 출토양상에 의해 다음의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시기적으로 고려시대에 속한다는 점이다.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된 진단구 중에는 경주지역에서는 고려시대로 구분되는 장판타날 된 평기와가 뚜껑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인접한 곳에서 초기의 고려청자로 대표되는 해무리굽 완이 장판으로 타날된 기와에 둘러싸여 함께 출토되었다. 그리고 진단구로 사용된 토기 속에 들어있던 목탄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중심연대가 고려시대임을 밝힐 수 있었다. 이러한 출토상황으로 인해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진단구를 고려시대의, 나아가 고려전기에 속하는 유물로 추정할 수 있다.¹⁵⁾

둘째는 건물지와 관련된 내외공간과 그 경계의 하부에 의도적으로 땅을 파고 묻어 둔 것이다. 진단구가 묻힌 부분과 그 주변의 흙색깔이 다르고 토기의 저부도 수평으로 안정되게 출토되는 예들이 이를 말해준다.

셋째는 출토양상에 있어서 뚜껑을 덮고 출토되는 점이다. 뚜껑은 진단구로 사용된 용기에 따라 다른데 뚜껑을 덮어놓은 것으로 보아 내부에 내용물을 넣고 매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뚜껑은 속에 담은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유적에서 출토된 진단구 중에는 뚜껑이 공반되지 않거나 토기의 파손으로 인해 원형으로 복원되지 않는 것이 있다. 또 저부만 잔존해서 원형을 파악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 밖에 뚜껑과 함께 출토되었지만 여타의 것과는 이질성을 띠어 진단구로 보기에 애매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매납되어 출토된 토기라 할지라도 진단구로 사용한 흔적이 간취되는 것만을 한정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진단구로 사용한 흔적이란 토기의 기형이나 내용물, 혹은 출토양상 등에 있어 일관성을 띠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일부가 결실(缺失)되었더라도 함께 출토되는 토기들과 형태 및 제작기법이 동일해서 같은 성격의 토기임을 알 수 있는 경우이다. 그리고 매납된 토기의 기형이 다르거나 동체(胴體)의 일부만이 잔존(殘存)하더라도 뚜껑이 공반되거나 그 속

guidelines than as a compendium of final, definitive type description : 점검표의 작성에는 최종적 개요나 완성된 형식의 기술보다는 일련의 동질적인 표식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15) 본고에서 말하는 고려전기는 통상적으로 구분하는 1170년(毅宗24)의 무신란 발생 이전까지를 말한다.

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같아서 출토양상이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것이다. 그러나 함께 매납되어 출토되었더라도 이처럼 동일한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진단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상부의 건축물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매납되어 출토되는 토기 가운데 진단구의 성격을 가지며, 시간적으로는 고려전기 에 속하고, 공간적으로는 건축물과 관련된 하부에 의도적으로 땅을 파고 묻어둔 것으로서 출토양상은 뚜껑을 덮고 출토된 토기에 한정하여 다루 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진단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 이고 이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Ⅲ. 불국사 경내 출토 진단구의 유형

본장에서는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된 진단구를 유형별로 나누고 각각의 특징을 검토하려 한다. 유형의 설정은 기형과 내용물 그리고 출토양상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관찰되는 규칙성과 동질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유형분류를 한 이유는 본 유적에서 출토된 진단구의 기형에 대한 인식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며, 비슷한 시기의 다른 유적에서 출토되는 동일한 기형과의 비교 검토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려전기에 사용한 진단구의 전반적인 기형을 파악하여 이와 동일한 진단구가 출토되는 유적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유형의 분류가 각 유형사이의 선후관계나 기형적 변천을 고려한 것이 아님을 밝혀 둔다.

불국사 경내에서 매납되어 출토된 44점의 토기는 크기나 기형이 유사한 것도 있지만 서로 다른 것도 있고 매납 양상도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서로 간에 유사성이 인식된다. 예를 들면 매납된 장소가 달라도 토기의 기형이 같고 출토양상이 동일한 것이 있다. 또 매납 장소나 토기의 기형이 달라도 속에 담긴 내용물이 같거나 뚜껑이 공반되고 있어 출토양상이 같은 것이 있다. 마지막으로 토기의 기형과 내용물이 달라도 같은 장소에 섞여서 출토되고 있어 동시에 매납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 유기적인 관계는 이들 토기가 비슷한 시기에 진단구로 사용되어 매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 중에는 함께 출토된 여타 토기들과는 기형이 다르고 공반되는 유물도 차이가 있어 진단구로 보기에 애매한 것도 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매납되어 출토된 44점 중에서 서로 강한 동질성을 가지는 것은 41점이 있고 나머지 3점은 그 성격을 달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41점을 상부의 건축행위와 관련된 진단구로 보고 유형으로 분류하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도면 3). 유형별로 구체적인 기형과 출토양상 및 내용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I 유형 :동이(그림 3-1)

1) 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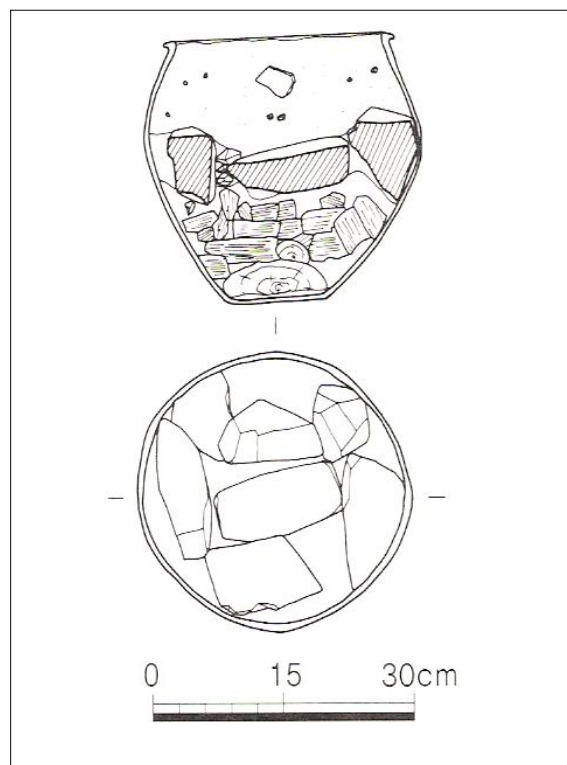
I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은 총 9점으로 기종은 동이이다. 기형은 동체(胴體)에서 경부(頸部)없이 바로 구연부(口緣部)로 연결된다. 9점 중 손잡이가 있는 것이 8점이고 손잡이가 없는 것이 1점 있다(도판1-①).

먼저 손잡이가 있는 8점을 살펴보면, 구연은 짧은 전의 형태로 수평외 반하며 상면에 ‘ㄱ’ 모양의 홈이 돌아가고 단부는 살짝 올라가거나 하향한다. 동체는 둥글고 배가 부른 모습이며, 점토띠로 기벽을 성형하였다. 입지름은 25cm 내외로 넓고, 동체의 최대경(最大徑)이 위치하는 중위에 별도로 만들어 붙인 대상(帶狀)의 손잡이가 가로로 부착되어 있다. 기고와 동최대경의 비율은 1 : 1.1~1.2 내외이다. 저부는 평저인데 중앙부로 가면서 약간 속아있다. 내저면의 가장자리에는 동체와의 연결을 견고히 하기 위해 보강토를 덧붙여 놓았는데 저부와의 접착을 위한 누름흔이 있다. 이러한 보강토와 누름흔적은 다른 유형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동체에는 문양이나 장식이 없고 외면에 격자타날이 확인되며 내외면 모두 회전방향으로 요철(凹凸)이 관찰된다. 기고는 모두 25cm를 넘고 있어서 출토된 진단구 중 크기가 가장 크다.

손잡이가 없는 동이를 보면 경부 없이 동체에 바로 구연부가 짧고 납작하게 부착되었다. 구연의 단부는 상면이 평탄하고 외측 아래로 비스듬히 하향한다. 구연부와 동상부에 자연유가 덮여있고 동체에는 기벽을 형성하는 3~4cm 두께의 점토띠가 접합된 흔적이 남아있다. 동최대경은 동상위에 위치하고 동체내면에 소성 시 생긴 기포가 전체적으로 있으며 외면에도 곳곳에 기포가 확인된다. 기고와 동최대경의 비율은 1 : 1.4로 동체 폭에 비해 기고가 낮아 안정감이 있다. 저부는 평저이고 가장자리보다 안쪽이 약간 솟아 있으며, 외저면에서 초본류의 흔적이 확인된다. 견부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단선의 파상침선문이 2줄 장식되어 있다. 동체 내면에 박자흔이 있고 외면은 격자문 타날이 남아있다. 외면은 매끄럽지만 내면에는 요철이 뚜렷하다.

2) 출토양상

I 유형은 건물지 1로 구획된 내부에서 2점이, 건물지 3으로 구획된 내부에서 4점이 출토되었고 건물지 5의 동쪽에서 2m의 간격을 두고 일렬로 매납되어 출토되었다. I 유형은 모두 단독으로 매납되었고 주로 건물지 내부에서 확인되며 속에는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많은 양의 돌과 숯(木炭)이 담겨있다(도판1-②). I 유형 중에는 내용물의 매납 상태가 잘 보존된 출토 예가 1점 있다(삽도 1).



삽도1. I 유형의 내용물 매납상태(경주대학교박물관, 2006, p. 47, 도면20)

삽도 1은 건물지 3에서 출토된 것으로 속에 먼저 숯을 넣은 다음 그 위에 화강암석을 넣어놓았다.

3) 내용물

I 유형 속에 담긴 내용물은 돌과 숯(木炭)이 있다. 돌은 크게 두 종류인데 표면이 둥글고 매끄러운 조약돌이나 강돌, 게르마늄석 같이 매납 장소의 주변에서 볼 수 없는 돌로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부러 가져다 넣은 돌이다. 이런 돌들의 크기는 직경 4cm 내외이고 주로 검은색을 띤다. 붉은색의 돌도 소량 있는데 원래의 색깔이 붉은 것을 찾아서 넣은 강돌이다.

또 다른 돌은 석영이나 백운모 같은 유리질의 광석이 다량 혼입되어 표면에 반짝임이 많은 화강암석이다. 길이 15cm, 폭 7cm 내외의 크기로 이 중에는 불을 맞아서 색이 붉거나 검어진 것도 섞여 있다. 이와는 다른 예로 고려시대 토광묘에서 자주 확인되는 요갱의 내부에 석영재의 할석이 매납된 경우가 있다. 청주 용암유적¹⁶⁾에서는 석영재의 돌을 덩어리째 넣거나 작게 부수어 넣은 요갱이 다수 확인된다. 고려시대의 매납에 관련된 또 다른 의식에서 이런 종류의 돌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숯은 참나무로 만든 것인데 모두 흑탄으로 직경 5cm 이상의 큰 것도 다량 출토되었다. 숯을 매납한 다른 예로 충남 금산 아인리 유적이 있다. 아인리 유적의 I 지점 6호 토광묘에서 목관 외부의 발치 쪽에 길이 약 40cm 정도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각종 유물을 배치한 후 많은 양의 덩어리 숯을 목관높이까지 매납하고 있다.¹⁷⁾ 이는 고려시대 토광묘의 묘광 바닥에 숯을 전면에서 까는 형태와는 차이가 있어 숯의 방부 방습과 같은 기능적인 목적 외에 정화(淨化) 등의 제의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4) 뚜껑

I 유형에는 뚜껑으로 암키와를 사용하여 출토된 것이 있다(도판1-③). 건물지 5의 동쪽에서 출토된 3점의 뚜껑으로 사용된 암키와는 철면이 선문(線紋)의 장판 타날판으로 타날되어 있다. 색깔은 회청색이 2점이고 1점은 암회색을 띤다. 이중 완형에 가깝게 남아있는 것의 크기를 보

16) 한국문화재보호재단·한국토지공사, 2000, 『청주 용암유적(II)』, p. 99.

17)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4, 『錦山 衙仁里 遺蹟』.

면 너비 28cm, 길이 32.7cm, 두께 2cm로 동이의 넓은 구경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크기이다. 출토된 암키와의 크기가 뚜껑으로 사용하기에 알맞은 것으로 보아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 암키와를 뚜껑 대신 사용한 것 같다. 따라서 나머지 I 유형들도 뚜껑으로 암키와를 사용해서 매납하였다고 추정된다.

고려시대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그릇 중 동이는 대형기종으로 분류되고 주로 저장용이나 운반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다.¹⁸⁾ 그런데 한편으로는 진단구와 같이 의례용으로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II유형 :경부가 없는 호 (그림 3-2)

1) 기형

II유형은 경부가 없는 호인데 22점으로 수량이 가장 많다. 동체에서 경부 없이 바로 구연으로 연결되며 특히 구연부가 1cm 이하로 짧고 독특한 특징이 있다(도판2-①, ②, ③). 구연부는 직립하거나 살짝 외반하며 그 단부(端部)는 역삼각형, 방형, 원형, 첨단(尖端)이다. 기벽은 저부에서 105° ~ 125° 가량 벌어지며 올라가다가 동상위(胴上位)나 동중위(胴中位)에 최대경을 가진다. 둥글게 벌어진 동체에서 구연부까지는 곡선으로 줄어들며 연결된다. 기벽은 점토띠로 성형하였고 기고와 동최대경의 비율은 1.2 : 1 내외이다. 동체와 저부가 연결되는 외측면에는 보강토를 덧댄 후 깎기조정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있다. 저부는 모두 평저이며 중앙부로 가면서 약간 솟아 있다. 저부 내외면에 물레를 사용한 회전흔이 보이는 것도 있다. 동체는 별다른 장식이 없는 무문(無紋)이다. 22점 가운데 두세 점에는 외면에 격자문으로 타날된 부분이 동체의 극히 일부에서 확인된다. 정면작업으로 대부분 지워지고 희미하게 부분적으로만 잔존하여 타날판의 완전한 크기나 문양을 복원할 수는 없다. 나머지는 모두 내외면에서 타날문양이 확인되지 않으며 정면할 때 생긴 횡방향의 요

18) 韓惠先, 2001, 『경기지역 출토 고려시대 질그릇』,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p. 18.

철흔만 남아있는데 특히 내면에는 요철이 뚜렷하다.

2) 출토양상

Ⅱ유형은 대다수가 건물지 1과 관련해서 출토되었고, 건물지 4에서도 2점이 출토되었다. 이 중 단독으로 매납된 것이 3점이고 나머지는 여러 개가 함께 매납되어 있어서 출토상황이 I 유형에 비해 다양하다.

먼저 단독으로 출토된 것을 보면, 건물지 1의 내부에서 뚜껑과 내용물을 공반하고 1점이 출토되었다. 건물지 4에서는 석열 가까운 곳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 모두 내부가 비어있지만 둘 다 뚜껑이 공반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내용물을 담고 매납되었다고 추정된다.

2점 이상이 한꺼번에 출토되는 경우는 건물지 1의 남쪽에서만 확인된다. 이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으로만 매납된 것과 서로 다른 유형이 같이 섞여서 매납된 것이 있다.

Ⅱ유형만 매납된 것으로는 건물지 1의 기단석축 남쪽에 석축과 나란히 매납된 4점과 그 남쪽에서 불규칙하게 5점이 함께 출토된 것이 있다. 2가지 이상 서로 다른 유형이 섞여서 출토된 것으로는 Ⅱ, Ⅲ, Ⅳ유형이 각각 1점씩 섞여 출토된 것이 있다. 또 돌로 둥글게 구획한 내부공간에서 Ⅱ유형 5점과 Ⅳ유형 1점이 섞여서 한꺼번에 출토된 것이 있다.

이렇게 다수가 한꺼번에 출토되는 경우는 매납양상과 유형간의 조합에 있어 어떤 규칙성은 찾을 수는 없다.

3) 내용물

단독으로 출토된 것 중 건물지 1의 내부에서 출토된 것은 이와 인접한 곳에 매납된 I 유형의 내용물과 같은 까만 천석(川石)이 들어있다(도판2-②). 건물지 4에서 출토된 두 점은 동체뿐 아니라 저부까지 깨진 채 출토되었기 때문에 속에 들어있던 내용물이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속에 곡물같은 유기물이나 액체가 들어 있었다면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없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상에서 Ⅱ유형의 매납토기가 단독으로 매납된 경우는 속에 돌을 넣어 매납한 것과 속이 비어 있는 2가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2점 이상 한꺼번에 매납된 경우 속에 내용물을 담고 있는 것은 소량

의 솟이 검출된 1점 밖에 없다. 나머지는 모두 속에 담긴 내용물이 없는데 이들 중에는 뚜껑을 공반하고 출토된 것이 많다. 일부는 뚜껑이 없는 것도 있으나 정황상 바로 옆에 매납된 동일한 기형이 뚜껑을 공반하고 있어서 모두 내용물을 담고 뚜껑을 덮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뚜껑

Ⅱ유형을 전체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인 14점이 뚜껑을 공반한다. 이들 뚜껑은 진단구로 사용한 토기와 태토나 소성도가 동일하고 구연부를 덮기 알맞은 크기라서 원래부터 뚜껑으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뚜껑은 신부(身部)가 결손된 것이 많지만 원형으로 복원이 가능하다. 정부와 신부의 특징에 따라서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된다(도면 4).

(1) 뚜껑 A형 (도판 2-①)

원형으로 출토되었으며 소성상태가 양호한 경질소성이다. 외면은 회색이고 내면은 이보다 약간 더 옅은 회백색이다. 기형은 반구형에 가깝고 정부(頂部)는 내외면 모두 약간 편평한 편이다. 기벽은 전체적으로 요철이 없고 두께가 일정하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깨끗하게 정면하였다. 모두 2점인데 1점은 신부의 극히 일부만 잔존한다. B, C형의 뚜껑에 비해 두께가 두껍다.

(2) 뚜껑 B형 (도판 2-②)

개신(蓋身)의 일부만 잔존하지만 도상복원이 가능하여 전체적인 기형을 알 수 있다. 경질소성으로 색깔은 회색과 암회색을 띤다. 내외면의 정부는 편평한 편이고 기벽도 대체로 균일하다. A형과 달리 내면에서 약하게 요철이 확인된다. 정부(頂部)주위로부터 1/3지점까지는 기벽이 두껍고 그 바깥쪽으로는 두께가 얇아져서 신부의 기면에 두께 차로 인한 단이 진다. 정부의 외면에는 성형 시 깨끗하게 마무리하지 않았거나 도구흔이 남아있어 표면이 거칠다. 내외면 모두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고 총 4점이 있다.

(3) 뚜껑 C형 (도판 2-③)

원형으로 출토된 것은 없으나 도상복원되어 기형을 알 수 있다. 와질 소성이고 색깔은 회백색이다. 정부는 내외면 모두 밖으로 볼록하다. 기벽은 정부 주위가 더 두꺼운 편이나 신부에 요철이 심해서 기벽의 두께가 균일하지 않다. 정부의 외면에는 태토와 도구흔이 거칠게 남아있다. 신부는 구연부 쪽으로 가면서 내만하는데 구연단부에서 살짝 외반하는 것도 있다. 총 8점으로 내외면 모두 회전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위와 같이 3가지 형식으로 분류된 뚜껑은 II유형에 이어서 고찰할 III유형의 진단구와도 세트관계를 이루며 출토되고 있다. 그런데 뚜껑을 잘 살펴보면 정면도구를 이용하여 회전판 위에서 다듬은 흔적이 모두에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형 뚜껑은 정부 외면을 거칠게 그대로 남겨두고 있어 과연 실생활에서 사용하였을지 의문스럽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II유형은 건물지 4에서 단독으로 출토된 2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건물지 1과 관련된 곳에서 출토되었고 대부분이 좁은 범위 안에 여러 개가 한꺼번에 매납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III, IV유형과 같이 출토되고 있어 II, III, IV유형의 매납토기가 동일한 시기에 함께 매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III유형 : 정부가 짧고 구연부가 외반된 호(그림 3-3)

1) 기형

III유형은 모두 3점이며 정부가 짧은 호이다(도판3-①, ②). 구연부는 밖으로 벌어지면서 외반하고 길이가 1cm 이상으로 II유형보다 더 긴 특징을 보인다. 구연의 단면형태는 원형과 방형이 있다. 동최대경이 모두 상위에 있어서 동체가 II유형보다 세장한 느낌이 있다. 기고와 동최대경의 비율은 1.2~1.3 : 1 사이이다. 기벽은 점토띠를 쌓아 성형하였고 외면에 격자문 타날이 희미하게 관찰되는 것도 있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에 의한 요철이 잘 나타나 있다. 정부는 평저이고 중앙부로 가면서 약간 솟아 있다. 외면은 무문인데 이 중 한 점은 동상부에 횡침선이 한 줄 시문

되어 있다.

2) 출토양상

Ⅲ유형은 모두 건물지 1의 남쪽에서 출토되었다. 단독으로 매납된 것은 없고 2점 이상 한꺼번에 매납되어 있다. Ⅲ유형만 매납된 것과 서로 다른 유형이 섞여 매납된 것으로 구분된다.

Ⅲ유형만 매납된 것으로는 돌계단 유구의 북서쪽에서 석열과 나란히 매납된 2점이 있다. 둘 다 속은 비어있고 한 점에는 뚜껑이 공반되었다. 이들의 북동쪽에서 Ⅱ, Ⅲ, Ⅳ유형이 각각 한 점씩 매납된 것이 있다. 이들은 서로 일정한 간격이나 방향성 없이 불규칙하게 3점이 매납되어 출토되었다.

3) 내용물

Ⅲ유형만 2점 매납된 진단구는 속에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다. 그러나 한 점에서 뚜껑이 공반되었기 때문에 내용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3가지 유형이 섞여 매납된 것 중 Ⅲ유형 속에 화강암석이 담겨있다(도판 3-②). I 유형의 내용물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4) 뚜껑

Ⅲ유형 가운데 뚜껑을 공반하는 것은 한 점이다. 그 기형은 앞에서 살펴본 B형에 속한다(도판3-①). 하지만 출토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나머지 2점도 뚜껑을 공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뚜껑의 기형은 A, B, C형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이상으로 볼 때 Ⅲ유형은 단독으로 매납되지 않고 주로 다수가 매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I, Ⅱ, Ⅲ, Ⅳ유형과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내용물인 돌과 목탄은 I 유형의 진단구만 아니라 나머지 유형의 속에도 내용물로 봉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IV유형 : 양면이 편평한 호(그림 3-4)

1) 기형

모두 4점으로 경부가 비교적 길고 구연부는 수평에 가깝게 외반되면서 넓게 벌어졌다(도판4-①, ②). 구연단부는 도톰하고 둥글며 구경이 저정보다 더 큰 특징을 보인다. 동체(胴體)는 저부에서 위쪽으로 약 50cm 정도 되는 지점부터 양면을 편평하게 눌러 놓았다. 누른 부분과의 경계는 모나지 않고 둥글게 연결되며 어깨도 각이 지지 않고 곡선으로 부드럽게 연결된다. 최대경은 동상위(胴上位)에 있고 아래로 줄어들면서 저부에 이른다. 기고와 동최대경의 비율은 1.4~1.7 : 1 사이로 동체가 Ⅱ, Ⅲ유형에 비해 긴 편이어서 장신형(長身形)에 가깝다. 저부는 원형이고 모두 평저이다. 동체는 타날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외에 별다른 장식이 없는 무문이다.

2) 출토양상

IV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천석(川石)을 1개씩 공반하는 것이다(도판4-①, ②). 모두 건물지 1과 관련해서 출토되었는데, 단독으로 출토되거나 다른 유형과 섞여서 출토되고 있다.

단독으로 출토된 2점은 건물지 1의 내부와 건물지 1을 축조하기 위해 쌓은 남북석축 동쪽에 인접한 곳에서 출토되었다. 이 중 남북석축에 인접해서 출토된 것은 진단구 저부의 아래쪽 흙 속에서 천석이 발견되었다. 다른 3점이 내부에 천석을 담고 출토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다른 유형과 섞여서 출토된 2점은 건물지 1의 남쪽에서 Ⅱ, Ⅲ유형과 함께 매납되었다. 특히 둥글게 구획한 석열의 내부에서 Ⅱ유형과 함께 출토된 것은 놀리지 않은 쪽의 동체 중상위에 직경 2cm내외의 구멍이 1개 뚫려 있다. 구멍은 용기를 소성한 후에 뚫은 것으로 구멍이 있는 진단구로는 본 유적에서 유일한 예이다.

3) 내용물

IV유형 속에 담긴 천석은 모두 표면이 매끄럽고 둥글며 1점씩만 출토되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크기와 색깔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크

기는 직경 5.5~7.7cm 내외 두께 2.5~4cm 정도이고 색깔은 붉은색, 녹색이 감도는 것, 회색을 띠는 것이 있다. 이 돌들은 모두 매납된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부러 가져다 넣은 것이다. 동체에 구멍이 나있어도 내부에도 천석을 넣은 것으로 보아 IV유형은 내용물인 천석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유형으로 파악된다.

4) 뚜껑

본 유적에서 출토된 IV유형은 뚜껑을 공반한 것이 한 점도 없다. 그러나 속에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뚜껑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동일한 기형이 출토된 다른 유적의 경우를 검토한 결과 북문로 왕경유적에서 본고의 C형 뚜껑을 덮고 출토된 예를 확인할 수 있었다.¹⁹⁾ 따라서 IV유형은 C형 뚜껑을 덮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 V 유형: 반구병(盤口瓶)(그림 3-5)

1) 기형

V 유형은 반구상(盤口狀)의 구연부가 특징인 병이다. 경부가 비교적 크고 통형(筒形)의 동체를 가진 것과 경부가 좁고 구형의 둥근 동체를 가진 2가지 예가 있다(도판5-①, ②).

동체가 통형인 병은 구연부가 반구상으로 직립되어 있으며 상하단부(上下端部)가 예리한 느낌을 준다. 짧은 경부는 위쪽으로 벌어지면서 턱이 지고 꺾여서 반구상의 구연과 연결된다. 구연부는 직립하는 듯 살짝 외반하는데 하단부의 약간 위쪽 외측면에 약한 돌대(突帶)가 한 줄 돌아간다. 구연은 도톰하고 단부는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어깨는 사선으로 벌어지다가 곡선을 이루며 동체에 연결된다. 기벽이 수직에 가깝게 줄어들면서 저부에 이르는 통형의 동체를 가졌다. 다른 유물에 비해 기벽 전체의 두께가 균일하며 0.3mm 내외로 매우 얇다. 내면에는 요철이 뚜렷하며 박자흔이 남아있다. 저부와 동체가 연결되는 외측면에는 접합을 위해

19) 韓國文化財保護財團·慶州市, 2003, 『慶州 北門路 王京遺蹟 試發掘調査報告書』(本文), pp. 623-630. (圖版) pp. 200-202.

보강토를 덧댄 후 도구로 깎은 흔적이 보인다. 저부는 평저이고 중앙부로 가면서 약간 솟아 있다. 외면에는 두 줄의 침선이 시문되었는데 경부와 건부가 연결되는 부위와 건부에 각각 한 줄씩 돌아간다.

다른 한 점은 좁은 경부와 풍만한 동체를 가진 병이다. 구연부는 반구형인데 짧게 직립하면서 위쪽으로 약간 벌어졌다. 구연부 외측면(外側面)에 돌대(突帶)가 3줄 돌아가는데 가운데 것은 약해서 희미하다. 경부는 짧게 직립하고 수평에 가깝게 외반하다가 꺾여서 구연부로 연결된다. 동체는 상하가 긴 타원형으로 경부에서 서서히 벌어지며 둥글게 부풀어서 동중위에 최대경을 가진다. 녹색색 자연유와 소성 시 생긴 둥근 기포가 동체 곳곳에서 확인된다. 저부는 평저로 중앙부로 가면서 약간 솟아 있다.

단경호는 위의 병의 아래에서 뚜껑과 세트로 출토된 것이다. 구연부는 직립에 가깝게 약간 외경하고 단부는 둥글게 마무리 되었다. 어깨는 수평에 가깝게 벌어지다가 곡선으로 동체에 연결된다. 동체는 사선방향으로 줄어들며 저부에 이르는데 자연유가 부착되어 기표면이 반짝거리고 둥근 기포가 곳곳에서 확인된다. 내면은 횡방향으로 요철흔이 뚜렷하다. 저부는 평저이고 외저면에 초본류가 부착된 흔적이 남아있다.

2) 출토양상

동체가 통형인 병은 건물지 1 남쪽에서 단독으로 출토되었다. 뚜껑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속에 많은 양의 내용물을 담고 있다.

동체가 구형인 병은 건물지 7의 출입구와 관련된 곳에서 출토되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또 다른 호가 매납되어 있어 두 점이 위 아래로 포개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아래의 호는 다른 호들과는 기형과 출토상황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엄밀히 말하면 V유형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형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상부에서 출토된 토기병과 공반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V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호는 출토상황뿐 아니고 여러 면에서 주의를 끄는데 이러한 형태로 매납된 다른 사례가 좀 더 보고된다면 보다 명확한 성격을 밝힐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 내용물

건물지 1에서 출토된 병은 속에 다량의 화강암석과 소량의 숯이 들어 있다. I 유형과 내용물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도판5-①).

건물지 7에서 출토된 두 점에서는 내부에 내용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둘 다 뚜껑을 공반하기 때문에 내용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4) 뚜껑

동체가 통형인 병은 내용물이 담겨 있지만 뚜껑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병의 구경 크기가 I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과 비슷하기 때문에 뚜껑에 대한 상정이 가능하다.

동체가 구형인 병은 뚜껑으로 다른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편(胴體片)을 사용하였다(도판5-②). 이 동체편은 외면에 한 줄의 횡침선이 지나가고 희미한 타날흔이 있으며 내면에는 부채살 모양의 내박자 흔적이 남아 있다. 동체편의 크기는 병의 구연부를 덮기에 충분한 크기이다.

상기한 병 아래에서 출토된 호의 뚜껑은 호와 태토 및 소성상태가 동일하다. 그리고 뚜껑을 덮은 채 소성되었기 때문에 세트로 제작되었다고 추정된다. 뚜껑 꼭지는 직경이 6.5cm로 상면이 편평한 원통형이고 개신부(蓋身部)에는 2cm 가량의 드림턱과 드림부가 달려 있다. 진단구로 사용된 다른 호(壺)와는 뚜껑과 기형, 소성상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용도에 맞게 주문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된 진단구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모두 무문양의 경향이 뚜렷한데, 표면에는 무늬나 장식이 없고 정면과정에 생긴 횡방향의 요철(凹凸)흔만 남아있다. 표면에 타날흔이 관찰되는 것도 서너 점 있으나 정면작업으로 지워져 있어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 문양이 시문되어 출토된 것은 모두 세 점으로 횡침선이나 파상침선문이 한 줄 또는 두 줄 돌아간다.

출토 유물에 대한 유형별 특징은 표(도표)와 같다. 주목되는 것은 동최대경의 경우 I 유형과 다른 유형 간에 구별이 뚜렷한 데 반해 저경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I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크기가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저경이 유형에 상관없이 좁아졌음을 알 수 있다. 기

고는 V유형이 가장 높고 Ⅱ, Ⅲ, IV유형은 20cm 내외가 다수이다. 구경을 보면 I 유형의 특징이 분명히 드러나는 반면 나머지 유형에서는 별 차이가 없고 크기는 12cm 안팎이 많다. 특히 V유형은 토기병임에도 불구하고 Ⅱ, Ⅲ, IV유형의 구경과 비슷한데 이는 속에 내용물을 매납해야 하는 기능적인 면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와 동일한 기형적 특징을 가진 진단구는 더 많은 문화유적발굴조사를 통해서 건물지 하부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발견될 것이다. 그 때 이들에 대한 편년이 가능하다면 상부의 유적에 대한 성격을 밝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때문에 다음 장에서는 본고에서 고찰한 진단구의 편년을 살피고자 한다.

IV. 불국사 경내 출토 진단구의 편년

본장에서는 앞에서 분류한 각 유형에 해당하는 진단구의 편년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된 진단구를 가지고 매납 시기를 알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았다. 그 다음에 동일한 성격과 기형의 토기가 출토되는 다른 유적을 검토하였다. 가까이 있는 경주지역에 있는 사찰과 도시유적을 포함하였고 경주 이외의 지역으로는 생산지 유적과 고려시대를 거친 유적 중 진단구가 출토된 사원지(寺院址)를 주요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들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와 불국사 경내에서 진단구로 사용된 토기의 사용 시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본고에서 연구한 진단구의 전체적인 편년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주지역의 다른 유적에서 출토된 진단구에는 기형이나 매납방식에 있어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약간씩 차이점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런 차이들이 매납시기의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말해주는 것이며 매납방식의 변화과정을 통해서 본고에서 고찰한 진단구가 앞 시기인 통일신라시대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된 진단구의 기형과 매납방식이 고려시대가 되면서 갑자기 생겨난 새로운 양식이 아닌 통일신라시대부터 점진적으로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아래에서는 각 유형별로 매납시기를 검토하였다. I 유형에서 V 유형까지 차례로 기술하였는데 이 순서가 유형간의 시기적인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I 유형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된 I 유형은 경주지역에서는 고려전기로 구분되는 장판으로 타날된 암키와를 뚜껑으로 덮고 출토되었다. 그리고 이 뚜껑처럼 장판으로 타날된 암키와가 초기청자 해무리굽 완을 둘러싸고 I 유형의 진단구와 인접한 곳에서 출토되었다. 장판기와와 해무리굽 청자완은 I 유형의 진단구가 매납된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지 유

물이다. 그리고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된 진단구 사이에서 나타나는 동질적인 특성은 이들이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이 매납되었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다른 유적의 출토 예를 보면, 요지(窯址) 출토품으로 I 유형과 동일한 기형의 동이가 김천 대성리 요지(窯址) 3호 요의 바닥에서 출토되었다(도면 5).²⁰⁾ 대성리 요지에서는 토기, 와(瓦), 전(塼), 고려청자가 출토되었는데 고려시대의 이른 시기부터 요업활동이 진행된 생산지 유적이다. 생산품은 병류(瓶類), 호류(壺類), 항(缸), 반(盤), 동이, 시루 등 토기가 주류를 이루며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것은 단경호이다. 대성리 요지는 생산지 유적으로서 당시 실생활에 사용되었던 토기의 기형 및 기종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요지의 생산품 가운데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된 진단구와 동일한 기형이 있다는 점 외에도 제작기법이나 기형적인 측면에서 유사점이 많아 주목된다. 가장 많이 출토된 단경호의 예를 들면 경부가 없거나 짧고 저부가 평저이며 기벽은 점토띠로 쌓아 올렸고 동체에는 요철흔이 남아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대성리 요지의 생산품은 진단구로 사용된 토기가 동이, 호류, 병류로 한정된 것에 비해 더 다양함을 보여 준다.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용기와 동일한 것을 매납하여 사용하는 예가 고려시대 분묘인 토광묘나 석곽묘에서도 보고되고 있다.²¹⁾ 의례용기와 일상용기의 구별이 가지 않는 점에서 당시 사람들의 실용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다.

고달사지 쌍사자석등지 하부에서도²²⁾ I 유형과 동일한 토기가 매납되어 출토되었다(도면 5). I 유형뿐 아니라 본고의 III, V 유형도 함께 출토되었는데 쌍사자석등과 관련하여 매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달사지 쌍사자석등은 통일신라의 석등처럼 사자가 서 있지 않고 앉아 있으면서 하대석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양식적인 측면에서 제작시기를 고려초기인 10세기경으로 보고 있다.²³⁾ 그 하부에서 출토된 토기가 매납된 시

20) 慶尙北道文化財硏究員・2002, 慶北開發公社, 『金泉 大聖里窯址 發掘調査報告書』, p. 57.

21) 京畿道博物館(주)정광중합건설, 2001, 『龍仁 麻北里 高麗 古墳』, p. 52.

22) 京畿文化財團 附設京畿文化財硏究院(院)驪洲郡, 2007, 『高達寺址Ⅱ3~5차 시·발굴조사보고서』, pp. 752~754.

23) 이란영, 2002, 「한국 쌍사자석등 양식 연구 시론」, 『문화사학』 17 (간송 전형필 선생 사십주기 추도 특집), 한국문화사학회, pp. 436~438.

기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거창 임불리 천덕사지에서는 석탑 주변에서 I 유형에 속하는 손잡이가 있는 동이가 출토되었다.²⁴⁾ 출토층위나 출토상황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천덕사지에서 수습된 다른 토기편 중에는 본고의 III, V 유형에 속하는 기형도 있다. 고려시대를 거친 소비지유적에서 본고의 대상이 되는 진단구와 동일한 기형의 토기가 출토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된 I 유형은 뚜껑으로 암키와를 사용하고 있는데 진단구에 암키와를 뚜껑으로 사용한 예는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황룡사와 신라왕경, 고달사지, 傳인용사지에서는 II, III유형의 진단구에서 뚜껑으로 암키와가 사용되었다. 이중 신라왕경에서 뚜껑으로 사용되어 출토된 암키와 중에는 용기의 구경에 맞추어 기와의 가장자리를 다듬어서 사용한 것도 있다. 기와를 뚜껑으로 사용한 예는 통일신라시대에도 있는데 경주 서부동 4-1번지에서 매납되어 출토된 합 2점 중 1점의 뚜껑으로 중판타날 된 암키와가 출토되었다.²⁵⁾

고려시대 건물지와 관련해서도 매납된 진단구에 기와가 공반되어 출토된 예가 있다. 기와의 용도는 뚜껑이 아닌 용기의 받침으로 사용되었는데, 고달사지에서는 I 유형의 토기 하부에 수키와를 받쳐놓은 예가 있고,²⁶⁾ 미륵사지에서는 매납된 토기호의 아래에서 고려시대 와편 2점이 출토된 예가 있다.²⁷⁾ 기와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진단구의 뚜껑으로 사용되었고 고려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용도는 뚜껑 외에 받침으로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려시대에는 생활유적이나 생산유적에서 다양한 기종의 토기가 출토되는데 비해 매납의례와 관련해서는 한정된 기종만을 사용하고 있다. 무덤에는 병이나 호류가, 진단구로는 동이, 호류, 병류가 매납된다. 무덤의 경우 서로 다른 기종을 섞어서 매납하는 경우는 드물고 동이처럼 큰 기종은 선호되지 않고 있다. 이는 무덤이 공간적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매납의례에 대한 사고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

24) 釜山女子大學校博物館, 1987, 『居昌壬佛里天德寺址』, p. 125.

25)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3, 『慶州 西部洞 19番地 遺跡 發掘調査報告書, (統一新羅 道路 建物址, 朝鮮 獄址)』,

26) 京畿文化財團 附設京畿文化財研究院驪洲郡, 200, 『앞의 책』, p. 754.

27) 國立夫餘文化財研究所, 1996, 『彌勒寺遺跡發掘調査報告書Ⅱ』, p. 301.

로 생각된다.

II 유형

II 유형의 진단구는 경주지역의 경우 사지(寺址)나 도시유적인 왕경유적에서 출토되었다. 모두 상부의 건축물과 관련된 진단구로 추정되는데 유물을 소개한 보고서에는 통일신라로 편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이들은 고려시대에 매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경주 이외의 지역으로는 생산지 유적에서 동일한 기형적 특징의 토기가 확인된다.

경주지역에서 II 유형의 진단구가 C형 뚜껑과 같이 출토되는 예는 신라 왕경유적과²⁸⁾ 傳仁容寺址에서²⁹⁾ 확인된다(도면 6, 도판 6). 황룡사에서는 중심곽(中心廓)과 석등지(石燈址) 주변에서 본고의 II, IV, V 유형에 속하는 진단구가 출토되었다. 석등지 주변에서 출토된 9점의 진단구 가운데 II, IV, V 유형에서 뚜껑을 공반하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도면 7).³⁰⁾ 이 중 IV 유형에 속하는 것은 본고의 뚜껑 C형과 동일한 뚜껑을 덮고 있다. 그런데 같이 출토된 II, V 유형의 뚜껑은 C형과 기형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기형이 다른 이들 뚜껑을 살펴보면 정부(頂部)가 편평하고 정부의 내면에 굴곡이 있으며 기측면(器側面)에도 내만 기미로 꺾인 굴곡이 관찰된다. 이 중 한 점은 뚜껑의 정부가 더욱 좁아지고 개신부(蓋身部)의 내부가 불국사 출토 C형처럼 위쪽으로 솟아 있다. 뚜껑의 구경이 세트인 토기 구경보다 커서 기능적으로도 내용물을 보호하기 좋도록 만들어져 있다. 모두 구연부를 아래로 향하여 덮고 있어서 불국사 출토 진단구와 공통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와 동일한 뚜껑을 덮은 예로는 북문로 왕경유적³¹⁾과 미륵사지³²⁾가 있는데 모두 II 유형

28)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2, 『新羅王京 發掘調査報告書 I(本文)』, p. 366.

29)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6, 「경주 傳仁容寺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30) 文化財管理局-文化財研究所, 1984, 『黃龍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 I』, pp. 235-240.

31) 韓國文化財保護財團慶州市, 2003, 『慶州 北門路 王京遺蹟 試發掘調査報告書 (本文)』, p. 623~630. (圖版) pp. 200~202.

32) 國立夫餘文化財研究所, 1996, 『앞의 책』, p. 300, (圖版編) p. 461,

에 속하는 진단구의 뚜껑으로 사용되었다(도면 8).

완형은 아니지만 Ⅱ유형과 다음에 살펴볼 Ⅲ유형의 특징을 가지고 생산지 유적 주변에서 출토된 것이 있다. 초기 청자요지인 강진 삼흥리 요지나³³⁾ 용인 고려백자요지에서³⁴⁾ 출토된 토기 중에는 경부가 없이 구연이 짧거나 구연단부가 뭉툭한 것과 경부가 짧게 있고 구연이 외반된 호가 있다. 이들은 구연부만이 아닌 평저인 저부와 저부에서 동체로 올라가는 각도 등에 있어 본 유적에서 출토된 진단구와 공통점을 보인다. 이들 외에도 Ⅱ유형의 기형적 특징을 가진 토기가 고려시대의 무덤이나 소비지유적에서 지속적으로 출토되는 것을 볼 때 고려시대에 사용한 호의 일반적인 기형으로 파악된다.

Ⅲ유형

Ⅲ유형은 다른 지역의 생산지 유적이나 사찰유적에서 출토예가 확인된다. 고달사지에서는 쌍사자석등지 하부에서 다른 유형의 매납토기 2점과 함께 출토되었다(도면 9).³⁵⁾

생산지 유적의 경우 용인서리고려백자요지에서 출토된 목이 짧고 구연이 외반된 호는 견부에 1줄의 음각선(陰刻線)이 장식되어 있는데 불국사 경내의 동일한 기형에도 음각선이 시문되어 있어 공통된다.³⁶⁾ 이들 유적은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된 Ⅲ유형에 해당하는 진단구의 매납시기가 언제인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된 Ⅱ, Ⅲ유형은 대부분 내용물을 담고 있지 않다. 하지만 뚜껑이 공반된 것이 많아서 속에 곡물 등 유기물질을 내용물로 담았을 가능성에 대해 앞 장에서 언급하였다. 이처럼 토기 내부에 곡물을 담고 매납되어 출토된 예가 있다. 미륵사지에는 북승방지(北僧房址) 동측(東側)의 고려시대 건물지 하부에서 구덩이를 파고 안치된 토기 속에 수수와 같은 곡물이 채워져서 출토되었다.³⁷⁾ 또 경주 북문로 왕경유

33) (財)湖南文化財研究院 農業基盤公社 康津莞島支社, 2004, 『康津 三興里窯址 I』.

34) 三星美術文化財團 · 湖巖美術館, 1987, 『龍仁西里高麗白磁窯 發掘調査報告書 I』.

35) 京畿文化財團 附設京畿文化財研究院 驪洲郡, 2007, 『앞의 책』, p. 754.

36) 三星美術文化財團 · 湖巖美術館, 1987, 『앞의 책』, p. 330, p. 502.

적에서는 매납토기의 시료분석 결과 내부에서 견과류와 식물껍질이나 알갱이가 검출된 것이 있다. 이들에 대한 보고서에는 씨앗단지나 곡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용 용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불국사 경내에서 진단구로 출토된 토기 중에는 동체에 구멍을 뚫어 놓은 것이 있고, 미륵사지에서도 뚜껑을 덮고 매납했으나 저부 중앙에 구멍이 뚫린 것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보관이나 저장용기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출토정황이나 토기의 기형으로 볼 때 곡물이나 씨앗 열매를 넣어서 진단구로 매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IV유형

IV유형은 상대적으로 경부가 길고 동체의 양면이 편평한 장신형의 호이다. 구연이 위를 향해 나팔입 모양으로 벌어지며 약간 긴 경부를 가진 호류는 안압지나 미륵사지의 통일신라유적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으며 영암구림리요지에서도 다수 확인된다(도면 10).³⁸⁾

동체의 한 면 또는 4면을 눌러 편평하게 만든 기형은 울릉도 천부동 고분과 안압지 등에서 확인되는데 통일신라 후기에 나타나는 기형으로 연구되고 있다.³⁹⁾ 이들은 경부가 강조되며 동체의 4면이 모두 분명하게 눌러진 기형을 하고 있다(도면 11).⁴⁰⁾ 그런데 영암 구림리요지나 보령 진죽리요지,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것에는 동체의 기벽(器壁)을 4면 모두 뚜렷하게 눌러 놓은 것이 있는 반면 둥글게 보이는 기벽이 잔존하는 것도 있다. 이들은 주로 3면이 눌러진 것이 많고 누른 정도도 매우 약하다. 이런 특징들을 定森秀夫는 9C이후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보았는데, 필자 역시 나말여초에 나타나는 기형적인 특징이라 판단된다.

이런 횡단면의 특징을 나타내는 진단구가 황룡사 동회랑지 기단부와

37) 國立夫餘文化財研究所, 1996, 『앞의 책』, p. 301.

38)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全羅南道靈岩郡, 1988, 『靈岩 鳩林里 土器窯址發掘調査』 -1次發掘調査中間報告-.

39) 定森秀夫, 1993, 「扁瓶考」, 『交流會報』, 東アジア古代史・考古學研究會, pp. 9-11.

崔孟植, 1988, 「統一新羅 줄무늬 및 덧띠무늬 토기병에 관한 小考」 『문화재』 27.

40) 문화공보국 문화재관리국, 1978, 『안압지 발굴조사보고서』, p. 238.

國立夫餘文化財研究所, 1996, 『앞의 책 (圖版編)』, p. 464.

서금당지 기단 주위에서 와편(瓦片)이나 뚜껑을 덮고 출토되었다.⁴¹⁾ 특히 석등지 기초유구(基礎遺構) 주변에서 출토된 진단구는 동체가 말각방형(抹角方形)인 점을 제외하면 크기와 기형이 본고의 IV유형과 동일하다. 뚜껑도 본고의 C형을 공반하고 있다. 이렇게 IV유형과 C형 뚜껑이 공반된 예는 신라왕경과 傳인용사지에도 있다. 이 중 신라왕경에서 출토된 진단구의 횡단면을 보면, 제 10가옥에서는 IV유형과 동일한 기형이, 제 13가옥에는 동체를 누르지 않은 것과 횡단면이 말각방형에 가까운 것이 있다 (도면 12).⁴²⁾

그런데 황룡사 서금당지 기단 밖의 동북모서리에서 출토된 진단구는 뚜껑으로 통일신라시대의 완(盪)을 공반하였다(도면 13).⁴³⁾ 본고의 IV유형보다 기고가 약간 더 높고 동체의 4면을 눌러놓은 점을 제외하면 기형적인 면에서 공통점이 많다. 완은 구연부를 위로 향하게 바로 얹혀 놓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진단구의 뚜껑이 구연부가 아래로 향하는 것과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뚜껑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고 토기의 구경에 적당히 맞는 것을 구해서 뚜껑 대신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일한 기형의 완이 영암구림리요지에서도 출토되었다(도면 14).

완이나 접시를 똑바로 얹혀서 진단구의 뚜껑으로 사용한 예는 앞선 통일신라시대에도 보인다.⁴⁴⁾ 따라서 완을 뚜껑으로 대신 사용하는 매납 방식은 IV유형과 유사한 기형을 가진 진단구에 나타나는 시간적으로 가장 빠른 요소로 볼 수 있다. 뚜껑대신 완을 사용한 진단구가 경주 북문로 왕경유적⁴⁵⁾에서도 3점이 출토되었는데 이중 한 점은 본고의 IV유형처럼 동체의 양면이 눌러진 것이다(도면 13). 나머지 두 점 속에는 표면이 매끈하고 등근 직경 7cm정도의 화강암제 천석이 들어 있어서 출토상황이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된 IV유형과 동일하다. 기형뿐만 아니라 매납 방법에 있어서도 유사점이 많다는 것은 곧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된 진단구가 앞 시기인 통일신라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41) 文化財管理局·文化財研究所, 1984, 『앞의 책』, pp. 240-241.

42) 文化財管理局·文化財研究所, 1984, 『앞의 책』, p. 238.

43) 文化財管理局·文化財研究所, 1984, 『앞의 책』, p. 238.

44)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996, 『財買井址發掘調查報告書』.

45) 韓國文化財保護財團·慶州市, 2003, 『앞의 책 (本文)』 p. 623.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토기의 동체를 편평하게 만든 기형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유행하여 고려시대에도 꾸준히 애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⁶⁾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된 진단구 중 IV유형은 통일신라의 기형적인 특징이 가장 많이 잔존하며 동시에 4면이 아닌 양면만을 편평하게 만드는 고려적인 기형으로 바뀌고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IV유형의 기형적 특징 중 하나인 동체의 양면을 누른 병이나 호류는 고려시대 분묘에서 해무리굽 청자완과 함께 출토되며, 고양 중산유적처럼 후대의 분묘에 까지 매납되고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에는 동체의 양면을 누른 기형이 이른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유행했다고 생각된다.

V유형

V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구연부이다. V유형과 동일한 형태를 가진 구연부에 대해 박순발은 보령 성주사(聖住寺) 발굴조사보고서의 토기자료 분석에서 4단계인 G₃ 형의 구연부로 분류하여 10세기 전반으로 편년하였다.⁴⁷⁾ 미륵사에서는 토기병의 분류에 있어 반구형 구연과 최대경이 동중위에 있는 기형상의 특징을 들어 평저병 E로 분류하였고 고려시대의 평저호에 주로 나타나는 기형으로 보았다.⁴⁸⁾ 이와 같은 특징의 구연부를 가진 토기병은 고려시대 분묘유적인 경산 임당의 d-III-11호 석곽묘와 D-IV-12호 토광묘에서 해무리굽 청자완과 함께 출토되었다. d-III-11호 출토 토기병은 구연부가 직립하면서 양단부의 돌대가 예리하고 구순이 약간 외반하는 모습과 부풀은 동체가 본고의 V유형과 동일하다(도면 15). 이밖에도 V유형에 속하는 진단구가 고달사지 쌍사자석등지 아래에서도 출토되었다(도면 15).⁴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된 진단구와 동일한 기형을 가진 토기는 다른 유적의 경우에서도 고려시대의 이른 시기로 비

46) 윤용이, 1993, 『한국 도자사 연구』, 문예출판사, 서울, p. 310.

47) 保寧市·忠南大學校博物館, 1998, 『聖住寺』, p. 539.

48) 國立夫餘文化財研究所, 1996, 『앞의 책』, p. 319, (圖版編), p. 465.

49) 京畿文化財團 附設京畿文化財研究院·驪洲郡, 2007, 『앞의 책』, p. 752.

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된 진단구와 약간씩 다른 기형과 매납방식은 앞 시기인 통일신라와 연결되는 요소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불굴사 경내에서 출토된 진단구나 이와 동일한 기형의 토기를 고려전기의 출토유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

그런데 본고에서 고찰한 진단구의 시간적 선후관계는 뚜렷하지 않다. 통일신라시대의 기형적 특징이 남아있는 IV유형과 보다 새로운 기형인 II, V유형이 함께 섞여서 출토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출토유물에서 나타나는 이런 정황들로 부터 나말여초의 경주지역에는 왕조가 변했을 뿐 물질과 사람은 그대로 삶을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물질의 뚜렷한 단절 역시 없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지금까지 건축물의 축조와 관련해서 매납된 진단구의 유형과 편년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본고에서 고찰한 진단구와 동일한 유형의 진단구나 토기가 발굴되는 유적들은 고려전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소한 고려시대를 거친 유적이라고 판단된다.

진단구는 상부 건축물의 구조와 성격에 따라 그 하부의 경계나 공간 안에 다양한 양상으로 매납되어 왔으며 고려전기에는 I, II, III, IV, V 유형의 진단구를 묻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V. 맺음말

본고에서는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된 진단구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기형의 진단구가 고려전기에 건립된 건물지의 시기적 특성을 잘 나타내 주는 요소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말하였다. 이들 I, II, III, IV, V유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유형은 경주지역에서는 고려전기로 편년될 수 있는 장판기와를 뚜껑으로 덮어서 출토된 동이다. 이와 인접한 곳에서 뚜껑에 사용된 것처럼 장판으로 타날 된 기와에 둘러싸여 청자 해무리굽완이 출토되어서 I 유형의 매납시기에 관한 단서를 제공한다. I 유형은 내용물인 돌과 솥이 잘 남아 있어 당시 매납행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 유적 및 김천 대성리요지, 천덕사지, 고달사지 쌍사자석등지 하부에서도 I 유형이 발견된다.

II 유형은 경부가 없는 호(壺)이다. 건물지 1과 그 남쪽에서 I, III, IV 유형과 함께 출토되었고 속에는 내용물도 I 유형과 공통점이 있다. 경주지역에서는 사지(寺地)나 도시유적인 왕경유적에 출토 예가 있다. 고려시대의 이른 시기에 속하는 생산유적 주변에서도 II 유형의 기형적 특징을 가진 토기들이 출토된다.

III 유형은 경부가 짧고 구연부가 외반된 호이다. 건물지 1의 남쪽에서 II, IV 유형과 함께 출토된다. III 유형은 고려시대의 무덤이나 소비지유적에서 지속적으로 출토되고 있어 고려시대에 사용한 호의 일반적인 기형으로 파악된다.

IV 유형은 동체의 양면이 편평한 호이다. II, III 유형과 섞여서 출토되므로 이들 유형이 동시에 매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통일신라의 요소가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많이 잔존하지만 동체의 양면을 편평하게 만든 고려적인 기형으로 변화된 호이다. IV 유형과 같이 동체의 양면을 누른 기형은 고려시대의 이른 시기부터 유행하여 지속적으로 선호되는 기형이었다고 생각된다. 신라 왕경유적, 황룡사 석등지 주변, 傳인용사지 등에서 출토되었다.

V 유형은 구연부가 반구형인 병이다. I 유형과 내용물에 공통점이 있고 타 유적(他 遺蹟)에서 해무리굽완과 같이 출토되고 있어 시기가 전체

유물과 일치한다.

상기한 5가지 유형은 고려시대의 이른 시기에 속하는 유적에서 출토되기 때문에 고려전기의 기형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들과 동일한 기형적인 특징을 보이는 진단구는 유적의 발굴조사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주지역의 경우 많은 수의 문화유적발굴조사가 있어 왔지만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되었거나 유명(有名)을 얻은 유적들이 대부분이라서 유물이나 유적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볼 수 없는 진단구가 도시유적이거나 사찰유적에서 출토된다. 이것은 고려시대로 접어들면서도 활발한 건축행위가 이루어 졌음을 말하는 것이다.

고려시대에 도시의 수가 확대 팽창되었다는 사실은 사료적 기록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다.⁵⁰⁾ 도시가 개편되고 확대 발전되어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관청건립 등과 같은 대규모 건축물들이 축조되었음을 의미한다. 고려시대에 동남지방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경주지역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란 추정은 어렵지 않다.

이러한 활발한 변화와 움직임은 사찰에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고려왕조의 불교중흥정책으로 인한 사찰의 건립과 중수 그리고 사찰의 성격변화 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지방호족과 연합한 사찰을 중심으로 경제행위가 성행하거나⁵¹⁾ 사찰이 종교적 기능 외에도 역원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모습 등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찰의 성격변화를 보여주는 일례이다. 사찰보다 원의 성격이 주목적이었던 혜음원(惠陰院)처럼, 고려시대의 원(院)은 주로 간선도로로부터 사찰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되어 수도승과 일반 순례자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행려병자의 치료와 빈민구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상업활동을 통하여 이익사업에도 나섰다⁵²⁾. 이

50) 『高麗史』 권 12 세가 12 예종 1년 4월

앞의책, 권 19 세가 19 명종 2년 6월

속군, 속현들이 주, 군, 현으로 승격하여 해당지역의 중심지로 발전하면서 고려말까지 176개가 주현으로 승격되었다.

51) 정용범, 2006, 「고려시대 사원의 상업활동」 『釜山史學』第 30輯, 釜山大學校史學會, pp.537-538.

52)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 파주시, 「파주 혜음원지 발굴조사보고서」, 2006. p. 34에서 발췌.

런 이유로 고려시대로 접어들면서 새롭게 사찰의 내부나 주변에 건축물의 축조가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황룡사나 불국사, 감은사, 傳인용사지 같은 사찰유적에서 출토된 고려전기의 기형을 가진 진단구는 이 같은 역사적 사료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따라서 경주 지역에서 출토되는 이와 동일한 기형의 진단구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한 번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로 편년되었던 많은 수의 유적 내에는 통일신라의 것만이 아닌 새롭게 고려시대의 건축물들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주지역에서 진단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출토되는 것은 고려로 새롭게 왕조가 바뀌었을 뿐 물질과 사람은 동일한 장소에서 삶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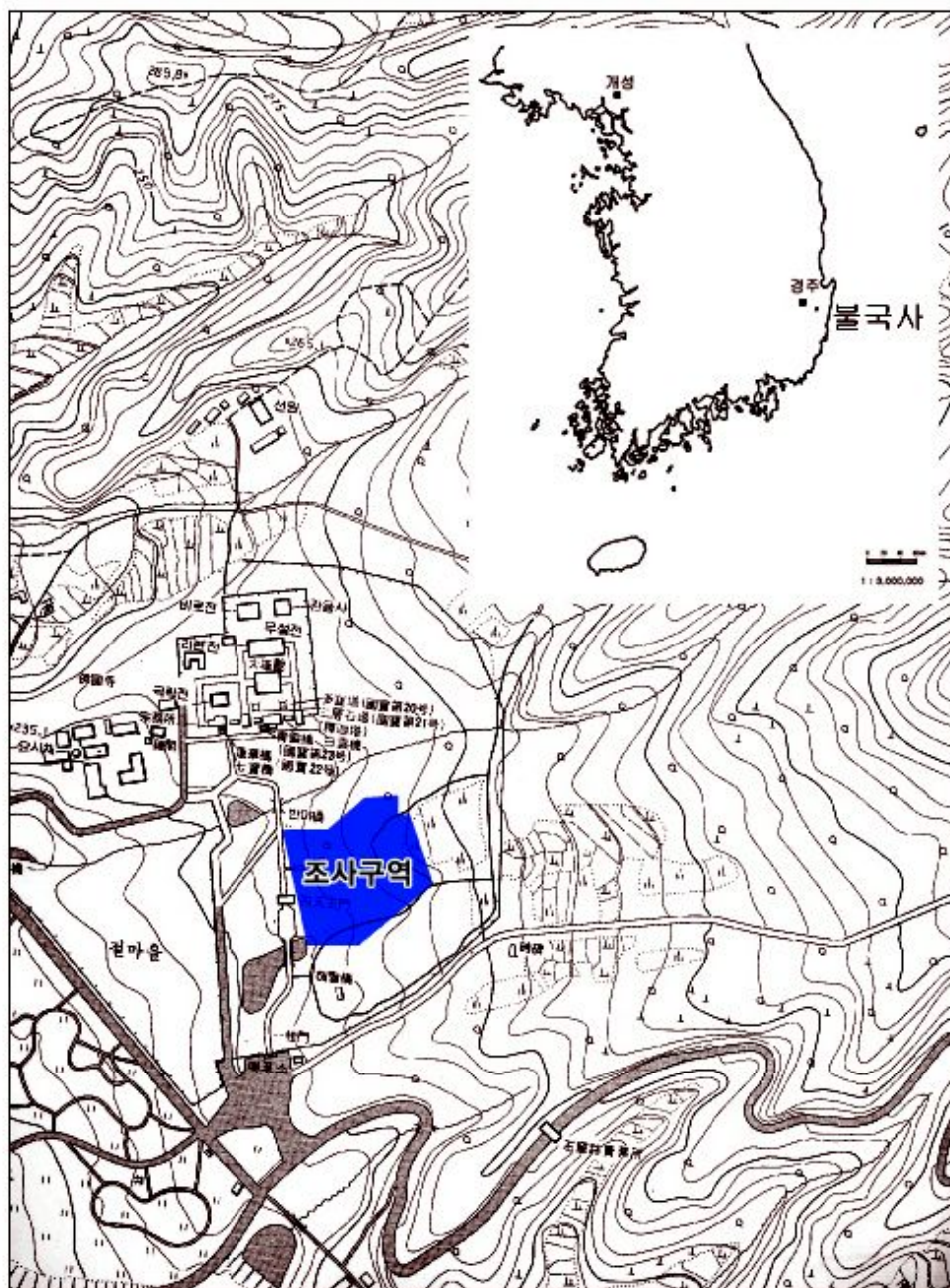
본고에서 이루어진 진단구에 대한 연구가 경주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고려전기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바란다.

참고문헌

- 姜友邦, 1991, 「불사리 장엄론」, 『불사리장엄 특별전』, 국립중앙박물관.
- , 1993, 「韓國古代의 舍利供養具, 地鎮具, 眞檀具」, 『佛教藝術』 209, 毎日新聞社.
- 강경숙, 1997, 『韓國陶瓷史』. 일지사, 서울.
- 京畿文化財團 附設京畿文化財研究院·驪洲郡, 2007, 『高達寺址Ⅱ3~5차 사·발굴조사보고서』.
- 京畿道博物館, 1998, 「安城 奉業寺址 發掘調査 現場說明會 資料」.
- , 2001, 「安城 奉業寺址 2次 發掘調査 現場說明會 資料」.
- 京畿道博物館·安城市, 2002, 『奉業寺』.
- , 2006, 『安城 梅山里 高麗 古墳群』.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慶北開發公社, 2002, 『金泉 大聖里窯址 發掘調査報告書』.
- 경주고적발굴조사단, 1988, 『芬皇寺담장 新築地遺構調査報告』.
- 慶州大學校博物館, 2006, 『佛國寺 境內 聖寶博物館 建立豫定敷地發掘調査 報告書』.
- 慶州市, 1976,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 光州直轄市市立民俗博物館, 1992, 『광주 삼소동 신흥마을 웅기』.
- 『高麗圖經』
- 『高麗史』
- 『高麗史節要』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996, 『財買井址發掘調査報告書』.
- , 2002, 『新羅王京 發掘調査報告書 I』.
- , 2003, 『慶州 西部洞 19番地 遺跡 發掘調査報告書』(統一新羅 道路·建物址, 朝鮮 獄址).
- , 2004 10, 「傳 인용사지 지도위원회의」.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1997, 『感恩寺』發掘調査報告書.
- 國立公州博物館, 1995, 『天安 南山里 高麗墓』.
- 國立夫餘文化財研究所, 1996, 『彌勒寺』遺蹟發掘調査報告書Ⅱ.
- 金正基, 1978, 「舍利莊嚴具의 新例」 『考古美術』 138-139.
- 김성태, 2005, 「고대건물지의 진단구에 대하여」, 『영남문화재연구』 16호.
- 奈良文化財研究所, 2003, 『古代의 官衙遺蹟 I: 遺構編』.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과주시, 2006, 『과주 혜음원지 발굴조사보고서』 1차-4차.
- 檀國大學校 中央博物館, 1992, 『망이산성 학술조사보고서』.
-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2002, 『錫杖洞遺跡Ⅲ 王京遺蹟 I』 17-18 合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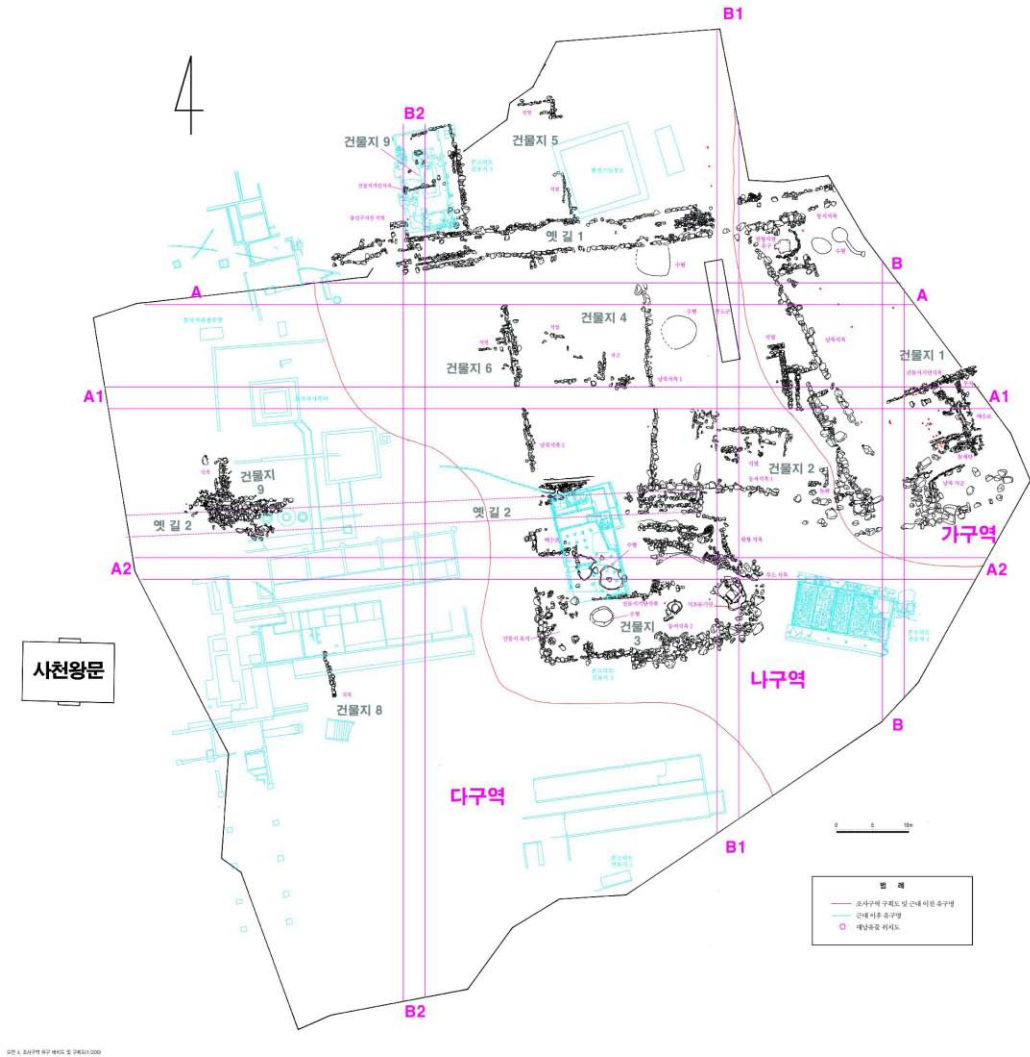
- 明知大學校博物館, 1994, 『용인 좌항리 고려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 木內武男, 1961, 「舍利埋納과 鎮檀」 『世界考古學大系』四.
- 文化財管理局文化財研究所, 1984, 『皇龍寺』 遺跡發掘調査報告書Ⅰ.
- 文化財研究所, 1992, 『중원 수암리 발굴조사보고서』.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8, 『雁鴨池』 發掘調査報告書.
- 박순발, 2000, 「羅末麗初 土器 編年豫告」, 『韓國古代史와 考古學』.
- 釜山女子大學博物館, 1987, 『居昌壬佛里天德寺址』.
- 保寧市·忠南大學校博物館, 1998, 『聖住寺』.
- 『三國史記』
- 森郁夫, 1976, 「奈良時代の 眞檀具埋納」 『研究論集Ⅲ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學報』第29冊,
- 徐五善, 1985, 『韓國平瓦文樣의 時代的 變遷에 對한 研究』, 忠南大學校 大學院碩士學位論文.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2, 『慶州 西部洞4-1番地遺跡』(統一新羅 道路建物址, 朝鮮獄址).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4, 『慶州 東川洞 793番地遺跡』.
-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1998, 『慶州皇吾洞 330番地建物址遺跡』.
- 윤용이, 1991, 「고려시대 질그릇(陶器)의 變遷과 特色」 『고려시대 질그릇』 연세대학교 박물관, 서울.
- , 1993, 『韓國陶磁史研究』, 문예출판사, 서울.
- 李旼馨, 2007,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에 대하여』, 慶州大學校 大學院碩士學位論文.
- 이상길, 2000, 「靑銅器時代 儀禮에 관한 考古學的 考察」, 大邱曉星카톨릭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李鍾玟, 2002, 『韓國의 初期靑磁 研究』, 弘益大學校 大學院美術史學科 博士學位 請求論文.
- 이란영, 2002, 「한국 쌍사자석등 양식 연구 시론」 『문화사학』 (간송 전형필 선생 사십주기 추도 특집), 한국문화사학회.
- 이진성, 1999, 『도자공예개론』, 반도출판사.
- 이형원, 1999, 「보령 진죽리 유적 발굴조사 개보」 『제 42회 전국역사학대회』.
-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全羅南道靈岩郡, 1988, 『靈岩 鳩林里 土器窯址發掘調査』 -1次發掘調査中間報告-
- 이희관, 2002, 「韓國 初期靑磁에 있어서 해무리굽碗 問題의 再檢討」 『제45회 전국역사학대회』
- 장남원, 2000, 「고려시대의 陶器와 靑瓷」 『제 3의 전통, 옹기의 원류를 찾아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 (財)湖南文化財研究院·農業基盤公社 康津·莞島支社, 2004, 『康津 三興里窯址Ⅰ』.

- 定森秀夫, 1993, 「扁瓶考」, 『交流會報』, 東アジア古代史・考古學研究會.
- 정양모, 1991, 『韓國의 陶瓷器』, 문예출판사, 서울.
- 정길자, 1989, 「新羅時代의 火葬骨藏用土器 研究」,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趙由典, 1987, 「新羅皇龍寺伽藍에 관한 研究」.
- 文化財管理局·文化財研究所, 1984, 『皇龍寺 遺跡發掘調査報告書 I』.
- 中央文化財研究院, 2001, 『陰聲 文村里遺跡』.
- 中央文化財研究院, 2001, 『保寧 九龍里遺跡』.
- 中央文化財研究院, 2002, 『忠州 水龍里遺跡』.
- 秦弘燮, 1988, 「高麗時代의 舍利莊嚴具」 『考古美術』 180호.
- 忠南大學校博物館, 1996, 『天安長山里遺跡』.
-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4, 『錦山 衙仁里 遺蹟』.
- 忠州博物館, 1996, 『忠州 丹月洞 高麗古墳群』.
- 충청매장문화연구원·현대정공, 2000, 『서산 무장리 요지』.
- 최건 외, 2000, 『토기·청자 I』, 예경, 서울.
- 『토기·청자 II』, 예경, 서울.
- 최광식, 2004, 「한국고대의 제사의례와 제사유적」 『先史와 古代의 儀禮考古學』, 한국상고사학회.
- 최건, 1987, 「한국청자발생에 관한 배경적 고찰」 『고문화』 31.
- 崔孟植, 1988, 「統一新羅 줄무늬 및 덧띠무늬 토기병에 관한 小考」 『문화재』 27.
- 최몽룡, 1985, 「高麗圖經에 보이는 器皿」 『韓國文化』. 전남문화재1.
- 최성락·이정호, 1988, 『해남 군곡리패총 출토 토기의 성격-제작방법을 중심으로』.
- 최은아, 2004, 「慶州地域 出土 鎭壇具에 대한 研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考古美術史學科 碩士學位論文.
- 崔兌先, 1993, 『平瓦製作法の 變遷에 대한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 2004, 「고려시대 기와연구의 성과와 과제-평기와 연구를 중심으로-」 『제1회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발표문집』, 한국기와학회.
- 한혜선, 2001, 『경기지역 출토 고려시대 질그릇 연구』,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韓國文化財保護財團·韓國土地公社, 2000, 『淸州 龍岩遺跡(II)』.
- 韓國土地公社·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 『慶山 林堂遺跡(1)』.
- 韓國文化財保護財團·慶州市, 2003, 『慶州 北門路 王京遺跡 試·發掘調査 報告書』.
- 漢陽大學校·京畿道, 1993, 『高楊中山地區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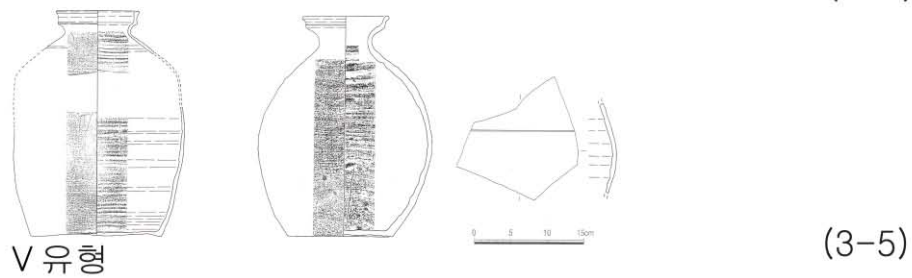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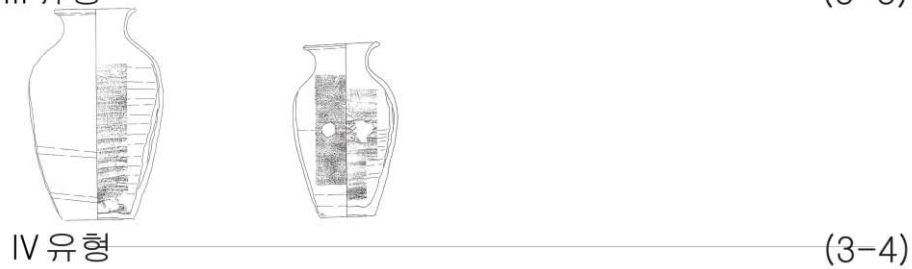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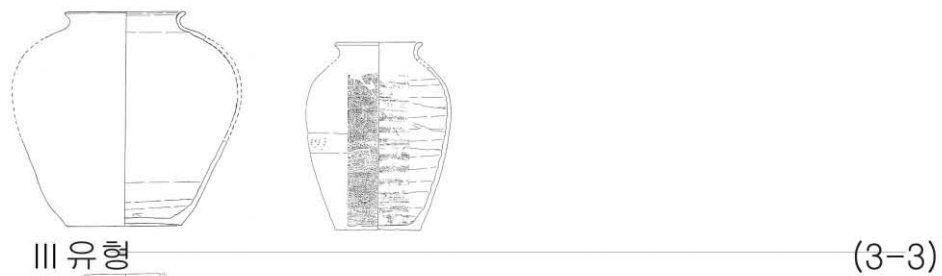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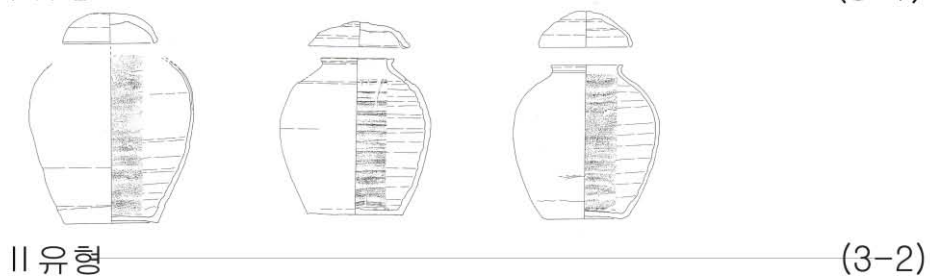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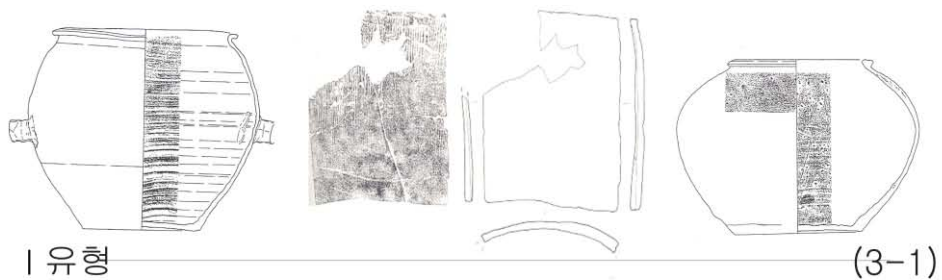


조사구역 지형도(1/5,000)

도면 1. 불국사 경내 성보박물관예정부지 발굴조사구역 지형도
(경주대학교박물관, 2006, 『경주 불국사 경내 성보박물관건립예정부지 발굴조사보고서』, p. 4. 도면2)



도면 13. 불국사 경내 성보박물관예정부지 발굴조사구역 유구배치도 및 구획도
(경주대학교박물관, 2006, 앞의 책, 별첨도면)



도면 14. 진단구의 다섯 가지 유형
(경주대학교박물관, 2006, 앞의 책, pp. 11-68. 매납유물 기술 참조.)



도판 1-①. I 유형

(경주대학교박물관, 2006, 앞의 책, p. 494, 도판132, p. 509, 도판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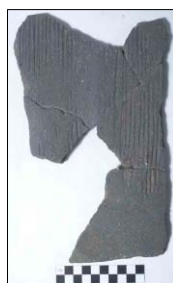
도판 1-②. I 유형과 내용물

(경주대학교박물관, 2006, 앞의 책, p. 494, 도판132, p. 509, 도판147. p. 510, 도판148.)



도판 1-③, I 유형과 뚜껑(장판타날기와)

(경주대학교박물관, 2006, 앞의 책, pp. 513-515, 도판151, 152, 153.)



도판 1. 불국사 경내 출토 진단구 I 유형



도판 2-①. II 유형과 공반된 뚜껑 A형
(경주대학교박물관, 2006, 앞의 책, p. 507, 도판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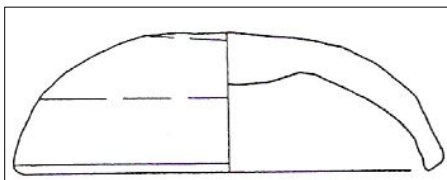


도판 2-②. II 유형과 공반된 내용물(천석) 및 뚜껑 B형
(경주대학교박물관, 2006, 앞의 책, p. 495, 도판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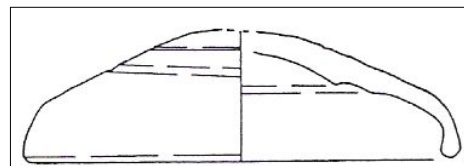


도판 2-③. II 유형과 공반된 뚜껑 C형
(경주대학교박물관, 2006, 앞의 책, p. 511, 도판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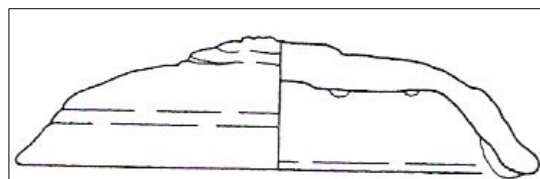
도판 2. 불국사경내 출토 진단구 II 유형



도면 4-①. A형 뚜껑



도면 4-②. B형 뚜껑



도면 4-③. C형 뚜껑

도면 4. 진단구 II 유형과 공반된 뚜껑
(경주대학교박물관, 2006, 앞의 책, p. 35, 도면16, p. 24, 도면11, p18, 도면8.)



도판 3-①. III유형과 공반된 뚜껑 B형
(경주대학교박물관, 2006, 앞의 책, p. 502, 도판140.)



도판 3-②. III유형과 공반된 내용물(화강암제 할석)
(경주대학교박물관, 2006, 앞의 책, p. 503, 도판141.)

도판 3. 불국사경내 출토 진단구 III유형



도판4-①, IV유형과 공반된 내용물(천석)
(경주대학교박물관, 2006, 앞의 책, p. 505, 도판143.)



도판4-②, IV유형과 공반된 내용물(천석)
(경주대학교박물관, 2006, 앞의 책, p. 507, 도판145.)

도판 4. 불국사경내 출토 진단구 IV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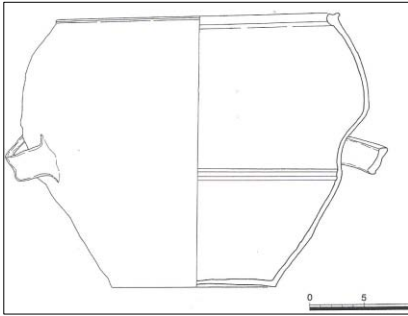


도판 5-①. V 유형과 공반된 내용물
(경주대학교박물관, 2006, 앞의 책, p. 500, 도판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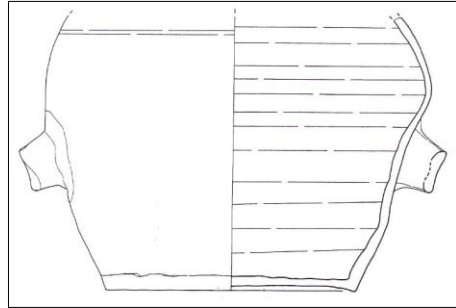


도판 5-②. V 유형과 공반된 뚜껑
(경주대학교박물관, 2006, 앞의 책, p. 516, 도판154)

도판 5. 불국사경내 출토 진단구 V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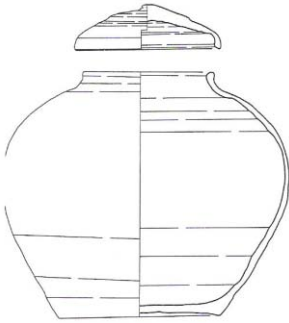


김천대성리요지 3호요 바닥출토



고달사지쌍사자석등 하부 출토

도면 5. I 유형의 출토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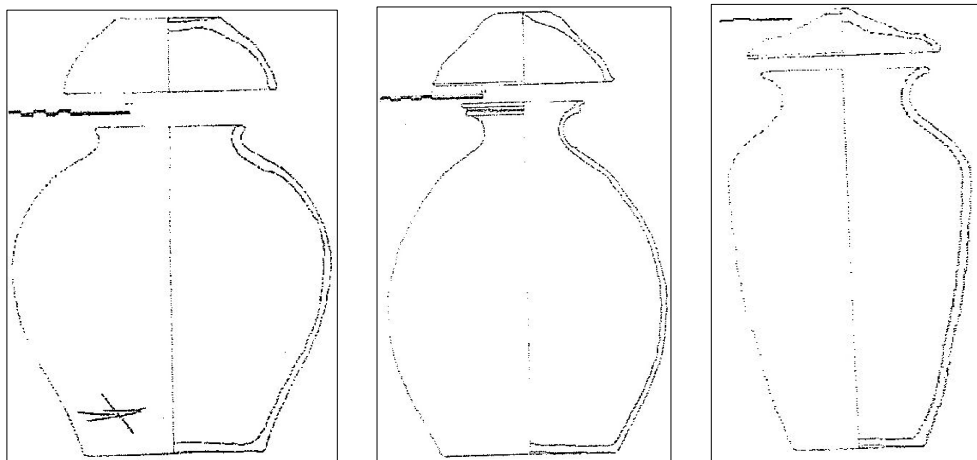


신라왕경유적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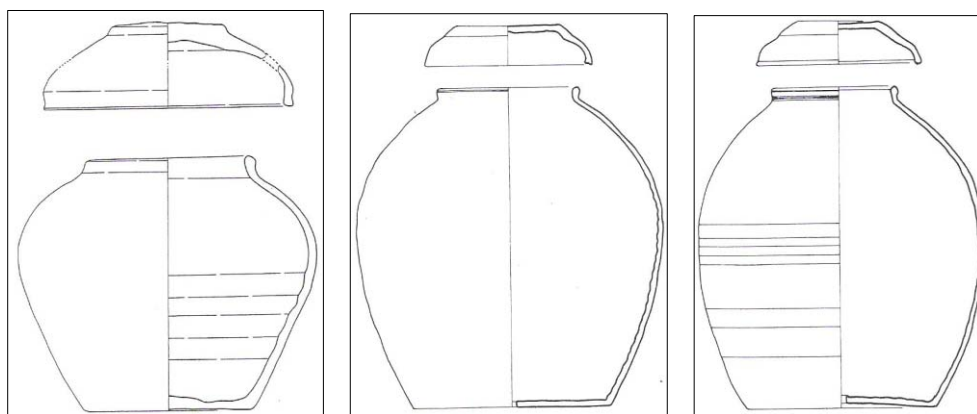
도면 6. II 유형과 뚜껑 C형의 출토 예.



도판 6. 傳인용사지 출토 진단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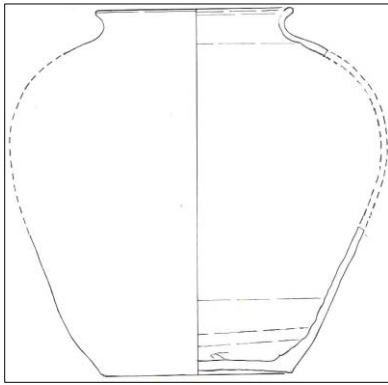
도면 7. 황룡사 석등지 출토 진단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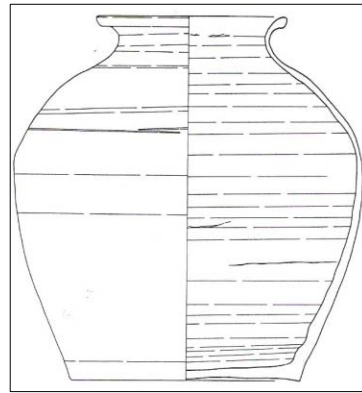
북문로왕경유적 출토

미륵사지 출토

도면 8. 뚜껑을 덮고 출토된 II유형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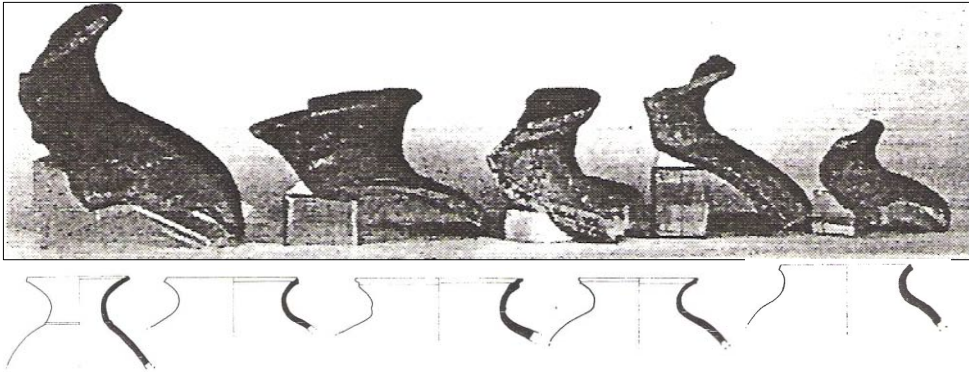


불국사경내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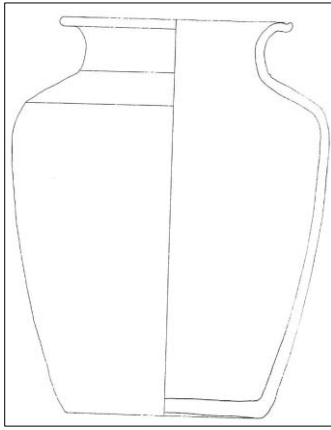


고달사지쌍사자석등지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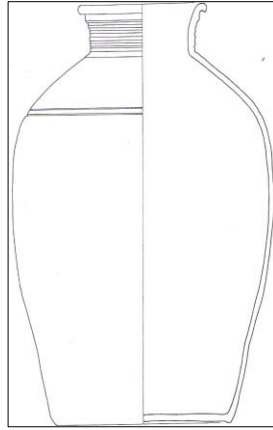
도면 9. III유형의 출토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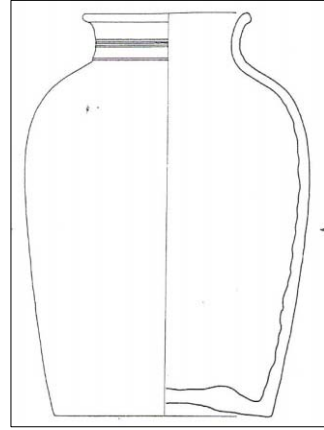
도면 10. 영암구림리요지출토 壺 口緣部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全羅南道靈岩郡,
앞의 책, 1988, p.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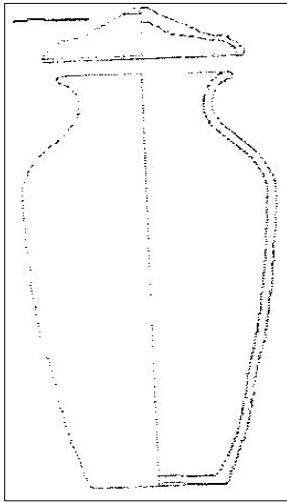
안압지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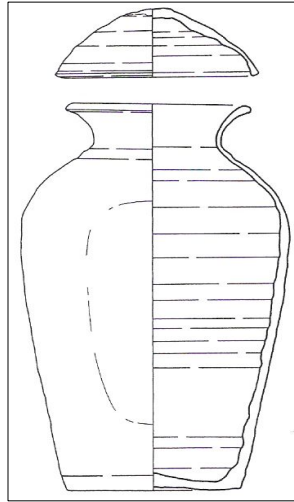
미륵사지사지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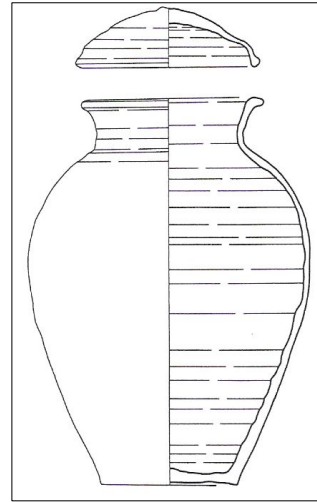
도면 11. 4면이 편평한 호의 출토 예



황룡사 석등지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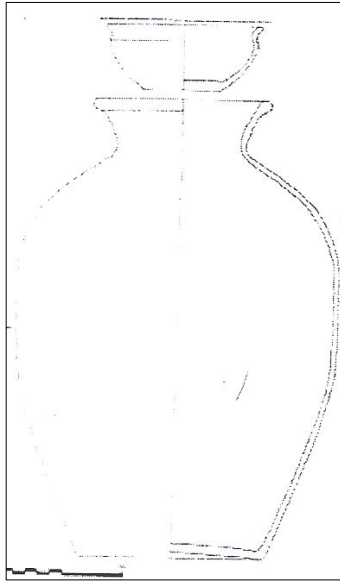


신라왕경 제10가옥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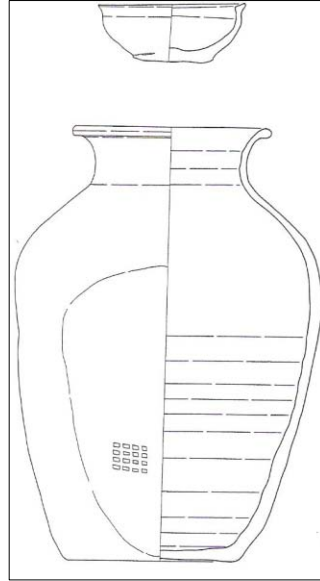


신라왕경 제13가옥 출토

도면 12. IV유형과 C형 뚜껑의 출토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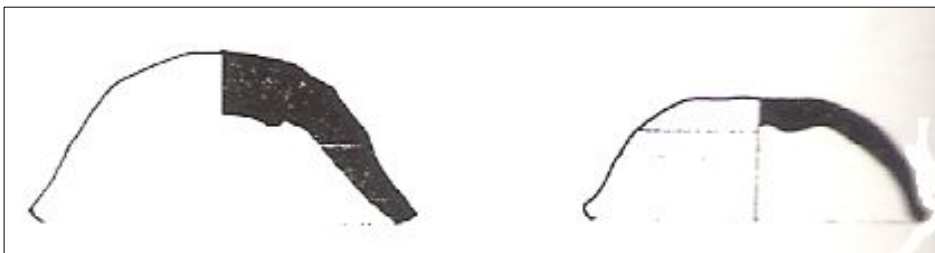


황룡사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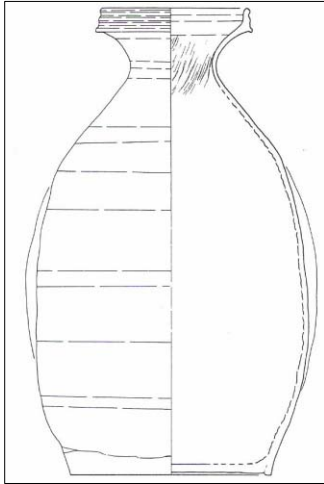


북문로 왕경유적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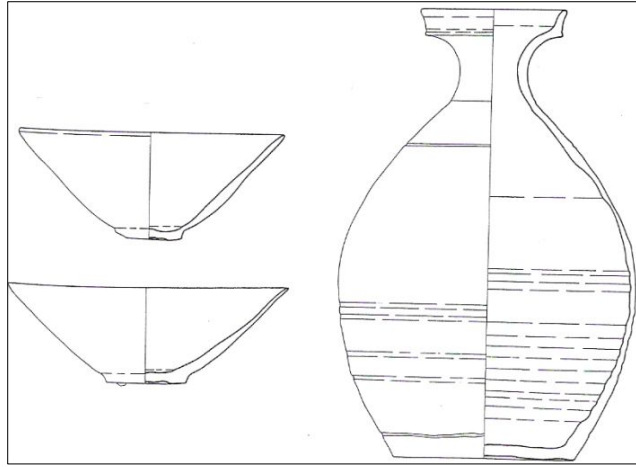
도면13. 완(盥)을 뚜껑대신 덮고 출토된 진단구



도면 14. 영암구림리요지출토 완(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全羅南道靈岩郡, 앞의 책, 1988, p. 53.)



고달사지 출토



경산임당 D-III- 11호출토 토기병과 해무리굽청자완

도면15. V 유형의 출토 예

표 1. 유형별 동최대경

유형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I 유형	9	29.9	33.3	32.1	1.2
II 유형	13	15.1	23.4	18.9	2.5
III 유형	2	19.7	19.8	19.8	0.1
IV 유형	4	14.2	18.5	17.3	2.0
V 유형	3	23.2	31.2	26.0	4.5

도표 1. 유형별 동최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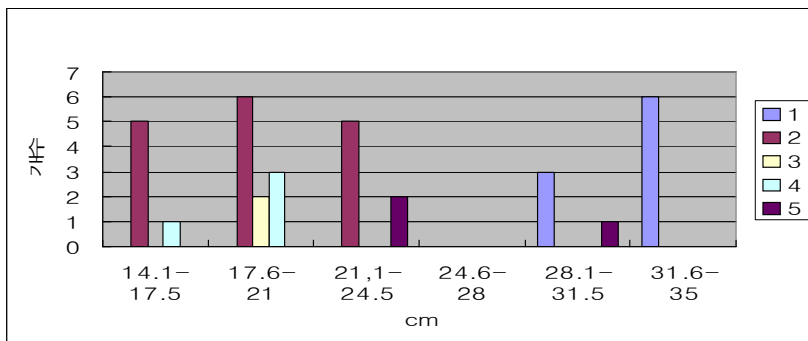


표 2. 유형별 기고

유형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I 유형	9	21.0	29.4	27.4	2.7
II 유형	14	17.4	25.1	21.3	2.2
III 유형	3	22.6	29.0	25.7	3.2
IV 유형	4	21.9	28.5	25.6	3.4
V 유형	3	25.6	30.1	28.6	2.6

도표 2. 유형별 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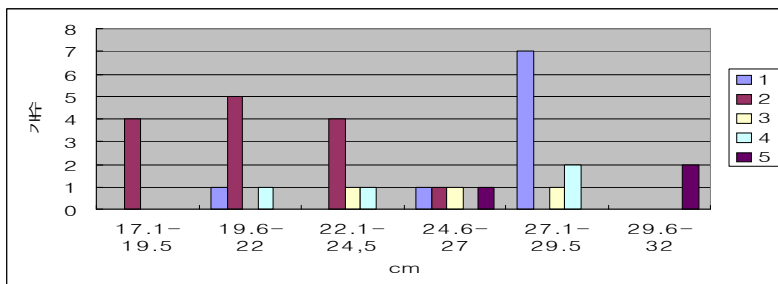


표 3. 유형별 저경

유형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I 유형	9	13.5	16.8	15.6	1.0
II 유형	22	9.3	16.6	12.4	2.1
III 유형	3	11.6	13.8	12.6	1.1
IV 유형	4	7.6	10.6	9.6	1.4
V 유형	3	14.4	18.7	16.4	2.2

도표3.유형별 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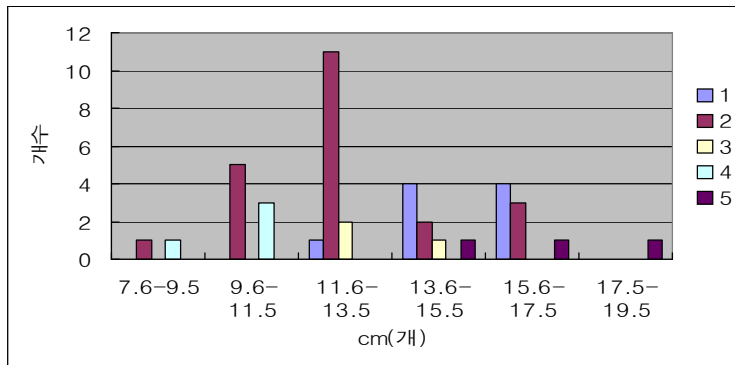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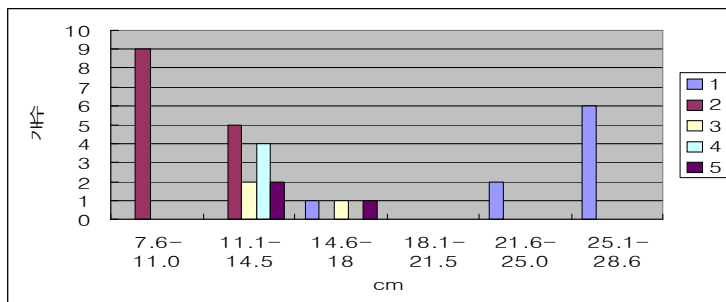


표 4. 유형별 구경

유형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I 유형	11	15.6	26.9	22.5	4.8
II 유형	16	7.6	13.1	10.4	1.6
III 유형	3	11.5	16.3	13.3	2.6
IV 유형	4	11.1	13.7	12.1	1.1
V 유형	3	11.2	16.3	13.1	2.8

도표4 .유형별 구경



A study on Jindangoo excavated in the Bulguk temple area

Kim, Cha - Jung

Department of Cultural Resource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ang, Bong Won)

(Abstract)

This thesis examines pottery vessels excavated from the ruined building complexes located within the territory of Bulguk Buddhist Temple originally founded in the middle of the eighth century A.D. in Gyeongju, North Gyeongsang Province. A total of 41 pottery vessels were collected from the underneath of the ruined building complexes. These potteries were deliberately buried when people began to work on the building complexes. Oriental people in general have had a strong tendency to have deposit various things like iron and bronze materials including pottery under the ground of architectures such as palaces, Buddhist temples, and even residential houses. By doing this, people wished many different things such as good luck and health, a longevity of buildings, and in particular a weakening the energy of the earth. These things are generally called Jindangoo.

A total of 41 Jindangoo pottery excavated from Bulguk Buddhist temple area was classified as five different types as follows:

Type I is a bucket. It was excavated with a cover of a female roof-tile with long paddle beaten surface decoration. This is a typical roof-tile around Gyeongju in the early Goryeo Dynasty. In addition, a celadon bowl with a halo-shaped foot was excavated near the bucket.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a lot of stones and charcoals were found in the Type I pottery. This kind of pottery was also excavated at Daeseong-ri ceramic production site, Cheondeok Buddhist temple site, and under the twin lion-shaped stone lantern of Godal Buddhist temple, in Gyeonggi Province.

Type II is a jar without a neck. It is excavated from Number one building site with Type I and III. All of them have the same contents such pebbles and charcoal. Type II has been

also excavated from the Buddhist temple sites and residential areas in the capital city of Gyeongju.

Type III is a jar with a short neck and the mouth opened to the outside. Type III was excavated at south of number one building with type II and IV pottery. The same pottery type was excavated from Godal Buddhist temple site. Type II and III pottery were also found at the production sites dated to the early Goryeo Dynasty.

Type IV is a jar with a long neck and a flattened side. Many round and smooth river pebbles were inside of jars. It is assumed that Type IV pottery was buried with Types II and III at the same time, since they were excavated at the same locus. Type IV pottery were identified at Hwangryong Buddhist temple, Inyong Buddhist temple, and ruined palace sites respectively located in Gyeongju and they are dated to Unified Silla Kingdom.

Type V is a bottle characterized by tray mouth. The contents found in Type V pottery are also discovered in Type I pottery. In another ruins, it is excavated with Celadon Bowl with a halo-shaped foot. This is the very clue that Type V pottery was buried at the same time of others.

The Jindangoo pottery excavated in the Bulguk Buddhist temple area strongly indicates that ritual ceremonial behaviors in terms of depositing materials under the ground of architectural buildings continued on even if Silla Dynasty was replaced by Goryeo Dynasty. I hope that this research could play a small role for the study of ritual ceremony in terms of building architectures not only in Gyeongju but also elsewhere in Korea during the early Goryeo Dynasty.